



성도의벗 10
1972

순서

영감의 메시지

- 1 여러분의 잡지
- 2 죽은자에 대한 공의로움
- 6 가정의 안정에 관한 경전의 말씀
- 12 1페니로 나타낸 사랑
- 14 부모에게 드리는 어느 짧은이의 말씀
- 15 모든 필요한 것을 위한 때
- 17 사랑의 의미
- 19 선택하기
- 21 친구가 친구에게
- 23 뉴질랜드의 친구들
- 26 인디안은 결코 잊지 않는다
- 29 간증을 얻고 이를 지속하는 방법
- 32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
- 34 교사란 직분
- 37 질의 응답
- 41 존 테일러: 용감한 사람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

“구원이란 가족 단위로 이루어야 할 일이며…… 가족 단위란 현세와 영원을 통해 가장 중요한 조직이다.”라는 말은 적절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교회란 대체로 보아서 가족을 돋기위하여 만들어졌으며, 그에게 맡겨진 임무를 다해 왔으며, 해의 왕국의 가장의 반자는 계속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조셉 애프 스미스 대관장께서 “훌륭한 아버지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훌륭한 장군이나 정치가가 되는 것보다 더욱 위대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됩니다. 맥케이 대관장께서는 “인간이 사업이나 쾌락 추구를 자기의 가정보다도 중요 여기는 순간부터 그의 영혼은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마는 “진리, 명예, 미덕, 극기, 교육의 가치, 정직한 사업, 인생의 목적이나 특권 등 인생의 교훈을 자녀들이 배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첫째 되는 곳이 가정이며, 자녀를 키우고 교육시키는데 가정을 대신할 뜻이 없습니다.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 1968~1969년도 가정의 밤 교재 3 페이지)

부모들은 자녀를 올바로 키울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책임은 쉽사리 친척이나 친구, 이웃, 학교, 교회, 국가에 위임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의 간교한 계획을 피하고 주님의 고귀한 방법을 따르므로서 때가 이르면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된 가정에서 만날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강화하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때가 이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단란한 가정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1972년

제 8권

제 10호

10 월호

● 대관장단

- 해롤드 비이 리
엔 얼든 태너
매리온 저 롬니

● 십이사도

- 스펜서 더블류 킹볼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앤 스탠 폴리
리그랜드 리챠즈
휴 비이 무라운
하우워드 더블류 헌터
골든 비이 링크리
토마스 애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팩커
맬빈 제이 애쉬튼

군 검 열 필

1972년 10월 20일

검열번호 475

표지 설명: 트레버 사우시는 어느 가족이 갈매기를 잘 치료하여 날려보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한폭의 그림에 담았다.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1972년 10월 1일
매월 1일 발행
통권 제87호

편집겸 발행인: 앤 애드워드 무라운

번역: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말월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 종로구 정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인쇄소: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점가: 1권 100원
1단본 국내 800원
국외 선박 5불
항공 7불
(송료포함)

여러분의 잡지

이번 달의 성도의 벗

이

번 달 우리가 다룬 주제는 현세나 영원을 통해 가장 중요한 단위인 가족입니다. 가족은 교회의 기본 단위이며 사회의 초석입니다. 교회가 가족 단위를 그토록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족은 영원합니다. 가정이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서로를 사랑하고 도우는 것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가정이란 개인의 향상을 통해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장소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가족 단위를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지나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가정에서 실패했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에서 실패를 한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마 5:16 참조)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공헌이란 그들에게 이상적인 가정의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합당한 가정 생활의 표본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호에 실린 몇 가지의 기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관장단의 메시지 “죽은 자에 대한 공의로움”은 인간의 영원한 속성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자비, 죽은 후에 가족을 함께 결합시키는 구원의 계획을 설명해 줍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위한 때”는 가족과 우선권에 관해 말해 줍니다. 가족들과 항상 바쁘게 지내는 많은 교회 회원의 논평과 충고가 결들여 실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바쁘게 하며 시간을 빼앗는 여건은 장소에 따라 다르긴 하나, 원칙과 우선권은 어느 곳에서도 변경되어서는 안됩니다.

사랑이란 성공적인 가정 생활의 필수요건이며, “사랑의 의미”라는 크라크 스웨인의 기사는 부모나 젊은이 모두에게 관심을 불러 일으킬 훌륭한 생각을 제시해 줍니다.

“선택하기”라는 기사는 현명한 아버지는 어떻게 자유의지를 염두에 두고 자녀를 지도하는가 하는 좋은 예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도의 벗

성도의 벗의 기본 목표는 교회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원들에게 간증을 키울 수 있고, 복음의 원칙을 가르치며, 이러한 것들을 그들의 생활에 적용하도록 도울 수 있는 훌륭한 책을 만들므로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논평이나 제언을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기사에 특별히 흥미를 느꼈으며 유익함을 발견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성도의 벗에는 어떠한 기사가 실리기를 원하는지도 알려 주십시오. 우리는 가능한 많은 편지를 신도록 노력하겠으며 대답을 묻는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 우리는 성도의 벗이 발행되는 목적에 적합한 여러분의 제언을 모두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소를 적어 성도의 벗 담당자 앞으로 편지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께서 성도의 벗에 실릴 이야기나 기사나 시를 보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신앙심과 간증을 불러 일으켜 주는 성질의 것이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보내오신 기사가 표준에 맞고 실린만한 여백이 있을 때는 즉시 채택하여 신도록 하겠습니다. ■

죽은자에 대한 공의로움

우

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변의 율법으로 모든 우주를 다스리므로 그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호소의 하나인 인간은 그러한 율법에 순종함이 지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 주는 계시를 통해 그러한 진리를 분명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모든 왕국에는 저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나니, “왕국은 많도다. 이는 왕국이 없는 공간은 없고 큰 왕국이거나 작은 왕국이거나 공간이 없는 왕국은 없음이니라.

“어떠한 왕국이나 제각기 한 율법이 있고 율법에는 다 어떠한 한계와 조건이 있어,

“이 조건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모두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8:36~39)

이러한 진리는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율법에 의하여 다스려지며 그곳에 들어 가고자 원하는 자는 그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보라, 나의 집은 질서의 집이요, 혼란의 집이 아니니라. 주 하느님이 말씀하시느니라.”(교성 133:8)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법전을 주셨습니다. 영감이나 영적인 인도의 결여로 인하여 인간들은 이 율법과 그 적용에 있어서 이견을 갖고 있으나 그러한 율법은 실제로 존재하며, 그 왕국에 들어 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그러한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기본 원리로서 첫째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성신을 믿는 신앙, 둘째 죄의 성

실한 회개, 세째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 네째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례임을 가르칩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제일 먼저 이러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고 하신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진실하고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구세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받아 들여져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 수 세기 동안 기독교 세계는 이러한 원리를 잘못 적용하여 심각한 과오를 범하고 있으며 막중한 죄를 부지불식간에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는 육신의 몸으로 지상을 사는 동안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나 죽기 전에 주님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한 모든 사람은 영원히 정죄를 받으며 지옥의 고통을 면할 길이 없다고 선언하는 교리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관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이미 오래 전부터 기독교 세계에서 가르친 원칙이 되어 왔으나 그것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단테¹는 그의 저서 신곡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불행한 자에 대한 정죄의 교리를 묘사했는데, 이것은 13세기에 가르쳐지던 교리에 따른 것입니다. 이야기에 의하면 단테는 숲에서 길을 잃었으며, 거기서 로마의 시인인 버질²을 만났는데, 그는 단테에게 지옥의 형벌을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했

1. 단테, 알리게리 (1265~1321) 이태리 시인 겸 작가.
2. 버질, 퍼브리우스 베르기리우스 마로 (70~19BC)

죠셀 필딩 스미스 전대판장

으며 후에 다시 낙원을 보여주겠노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버질을 따라 지옥을 통해 림보라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이곳은 지옥의 변방으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이곳은 의롭게 살았으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은 영혼이 구원의 축복이 영원히 거부되고 정죄를 받는 곳이였습니다. 지옥의 상층에서 이 비참한 영혼들을 내려다 본 단테는 “수많은 어린이와 남녀”가 있음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의 안내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영혼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묻지 않는군요?”

단테는 알고 싶은 의사를 보였으므로 그 안내인은 다음과 같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멀리 가기 전에 그들이 죄인이 아님을 알리고 싶었소. 그들은 훌륭한 일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했다오. 그들은 믿는다는 사실을 증거할 침례를 받지 않았다오. 그들은 기독교 세계에 살았으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오. 나도 그중 한 사람이고, 바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다시 살 수 있는 욕망을 갖지 못한 채 절망 속을 헤매고 있는 거라오” (필로 엠 베 편, 세계 문학 대전[뉴욕: 백미란 출판사, 1940]446페이지)

그렇게 무서운 형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그러한 슬픔에 찬 고통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고자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영감에 찬 이 시인은 우리의 첫 부모로부터 그리스도의 시대에 까지 하나님을 알았던 의로운 자는 모두 승영에 오를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이러한 자에 관해 그는 “구원을 받은 인간의 영

이 아직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단테는 이토록 불행하고 오류를 빚은 교리를 지어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을 배도한 초기부터 전해 온 교리인 것입니다.

화란 공화국의 등장이라는 책을 쓴 역사가 모트리³는 기독교가 서구에 처음 전파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프리즐랜드의 수령인 래드보드는 개종해서 침례를 받으려고 했음이 분명한데, 즉 그 날 그들은 물로 가서 침수로써의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행해질 의식을 기다리면서 물속에서 있는 동안 래드보드 제사인 울프란을 향해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현재 돌아가신 우리의 선조는 어디에 있습니까?” 협명하지 못한 이 제사는 지혜보다는 질투 섞인 말로 “믿지 않는다는 영들과 같이 지옥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에 화가 치밀은 이 방인 수령은 물 속에서 뛰어 나오며 “깊은 우물 속이다.” “너희들과 함께 천국에서 굽주리느니보다 조상들과 함께 오던 신의 지옥에서 잔치를 베풀며 사는 게 좋겠다”하며 침례를 거부하였습니다. (1권 20페이지)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어리석고 무서운 교리가 영적인 암흑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며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선조들의 영혼을 구하려고 노력해 온 진실된 사람의 귀에 계속해서 고통의 소리를 울려 준다니 이보다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어린 아이가 침

3. 모트리, 존 론드로프(1814~1837) 미국 역사가 겸 의교가

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막막한 어둠 속을 방황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영터리 제사로부터 들은 성실하고 사랑이 많은 어머니가 얼마나 쓰라린 고뇌를 마음 속에 간직하게 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무거운 마음을 지닌 어느 어머니가 있는 가정을 방문하였는데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년 전에 그녀는 어린 아기를 잃었습니다. 그 아이는 목사가 주는 세례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 부모들은 목사를 찾아가서 장례식을 부탁하고 교회식으로 매장할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청은 무참히도 거절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이 아이가 영원히 길을 잊고 헤매게 된다는 이야기만을 듣고 돌아 왔던 것입니다. 상심한 마음을 안고 돌아온 이들 부모는 교회의 의식이나 기독교식 매장의 절차도 밟지 못한 채 먼 곳에다 사랑하는 아들을 묻었던 것입니다. 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몇년 동안을 이 어머니는 그 제사가 가르쳐 준 교리를 철석 같이 믿고 정신적인 고뇌를 참아 왔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아이가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이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그녀는 어린 아들의 영원한 고통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한단 말입니까? 그녀는 자기가 죽인 생명을 돌이킬 수 없는 회개하는 살인자처럼 자신을 생각하고 이러한 마음의 고통으로 정죄의 형벌을 받아 왔던 것입니다.

이토록 가슴 아픈 사연을 지닌 어머니를 내가 방문

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나는 이러한 교리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을 때 그녀의 고통스러웠던 얼굴에 기쁨이 떠 오르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그런 것은 어린이를 사랑하셨고 그들은 하나님 왕국에 속한다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물본경에서 아들 모로나이에게 한 물론의 말씀(모 8)을 읽어 주었으며 주님께서는 요셉 스미스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8세)에 이르기 전에 세상을 떠난 모든 어린이는 해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는다”(교회 정사 2권 381페이지)고 나타내 주셨다는 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영광스런 회복의 시대에 그러한 사실을 밝혀 주셨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나, 더 오래 살았다면 복음을 받아 들였을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해의 왕국을 기업으로 물려 받을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게 될 사람이나 정성껏 복음을 받아 들인 사람도 역시 해의 왕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인데 이는 나 주가 인간의 마음의 욕구에 따라, 그들의 행위에 따라 모든 인간을 심판하기 때문이니라.”(교회 정사 2권 380페이지)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비의 복음입니다. 또한 그것은 공의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데 이는 복음이 일부 종교가가 아직도 믿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것처럼 무서운 괴물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 위

하여 일부 사람과 천사가 영생을 얻도록 예임되었고 일부는 영원한 사망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예임된 천사나 인간은 특별히 변할 수 없게 계획되었다. 그들의 수는 매우 분명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증가할 수도 없고 감소될 수도 없다.”

복음의 진리가 그토록 가증할 만큼 외곡되고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두렵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자비는 물론 공의도 복음을 모르고 죽은 자의 편에서 그들을 응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죽은 수많은 영들이 영원토록 희망이 없는지 옥에 빠져서 고통을 당한다면 공의가 어떻게 발휘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전은 다음과 같이 말해 줍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친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시 89 : 14)

공의로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그의 모든 자녀에게 두루 미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복음을 회복하심으로써 주님께서는 죽은 자의 구원에 관하여 그의 말씀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기뻐하라. 크게 즐거워 하라. 세상 사람들아, 노래불러 울려 퍼지게 하라. 죽은 자여, 임마누엘 임금께 영원한 찬양의 찬송가를 부를지어다. 저는 창세 이전에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를 그 옥에서 속량해 줄 수 있게 정하셨느니라. 이는 갇힌 자가 석방될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128 : 22) ☩

-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
- 우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으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지 아니한을 믿는다.
-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키므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 우리는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와 의식은 제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제이 회개, 제삼 죄자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 제사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례(安手禮)임을 믿는다.
-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과 권능있는자에 안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할 것을 믿는다.
- 우리는 조대 교회에 있었던 것과 똑 같은 조직 즉 사도, 예언자, 감독, 교사, 촉복사 등이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을 믿는다.
- 우리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계시와 시현(示現)을 받는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및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 등을 믿는다.
- 우리는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된 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또한 몰몬경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모든 것과 앞으로도 하늘 나라에 관하여 많은 위대하고 중대한 것들을 계시 하실 것을 믿는다.
-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문자 그대로 집합하고 그 열지파가 회복 될 것을 믿는다. 우리는 이 대륙(아메리카)에 시온이 건설되며, 그리스도께서는 천히 지상을 다스리시고 땅은 새로워져서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는다.
- 우리는 자기 양심의 지시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또 사람마다 그가 원하는대로 어제서나 어느 모양으로나 혹은 무엇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똑 같은 특권이 허용됨을 주장한다.
-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순종함을 믿으며 또한 법률을 존중하고 지키며 지지함을 믿는다.
-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인에게의 선행을 믿는다. 진실로 바울의 훈계를 따른다 할 수 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것을 바라며, 이미 모든 것을 참아왔으니 모든 것을 참을수 있기를 원한다. 무엇이 먼저 유덕하고, 사랑 할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 할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

요셉 스미스



매리온 지 룸니

십이사도

가족의 안정에 관한 경전의 말씀

사회의 치명적인 병폐로 가족의 불안정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시해 보았으므로 나는 가족의 안전에 관해 경전은 어떻게 가르쳐 주나를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안전에 대해서 경전이 가르치는 바는 건물에 대한 시방서나 청사진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텁풀 스퀘아의 동편에 고층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건물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미 지하에 있는 토질에서부터 꼭대기의 탑까지 상세한 설계가 작성되었고 검토되었습니다. 필요한 노동량이나 자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나는 지진이나 강풍에도 이겨내기 위해 어떤 종류의 철강류가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연구를 하였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완성된 계획과 명세서가 제출되었으며 청부업자들은 이러한 사항들을 심사숙고하여 실천하게 됩니다. 건물을 짓는데 이러한 세부 계획이 주의 깊게 다루어집니다.

경전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세밀히 계획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든 날 천지가 지음을 받을 때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이었고 들의 모든 풀이 자라기 전이었더라. 이는 나 주 하나님이 말한 바 모든 것을 지면에 물체로 두기 전에 영체로 만들었음이라…”(모세 3:4~5)

그러나 인간 가족들은 지금 건물보다도 훨씬 뉘떨어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 자체보다도 훨씬 뉘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구를 포함하여 그의 모든 창조물은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기”(모 1:39) 위한 그의 위대한 사업을 돋도록 계획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인내하며 안정된 가정 생활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영생을 누릴 수 없다고 밝히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일진대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창조물인 인간을 만드실 때 구체적인 계획을 하시지 않았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경전에서 찾아 보겠습니다.

가족을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따른다는 것은 마치 건물의 계획이나 시방서를 이해하고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정되고 인내하는 가족을 짓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건이 됩니다. 가족을 짓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잘 이해되거나 따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대체로 보아 현대 사회에서 가족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전은 가족은 거룩하며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님을 말해 줍니다. 경전은 또한 하나님은 지상에 사는 모든 주민의 문자 그대로 아버지이시며, 인간의 영은 그가 낳으신 아들 딸이며, 그의 사업과 그의 영광은 그 자신이 누리고 계신 온전함과 승영에 그들을 인도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려 줍니다. 경전은 또한 인간이 그러한 온전함을 얻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지상에서의 시험 기간 동안 자신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의 영의 자녀들로 하여금 육신을 입게 하시고 거룩한 신권의 권능으로 남편과 아내로서 결합하게 하시며 지상에 있는 동안 생육하고 번창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룩한 성약을 지키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도록 돋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 계획은 그렇게 결혼한 한쌍은 남편과 아내로서 끝까지 견디며 결국 그들이 완전함에 이르고 스스로가 영의 자녀의 부모가 될 때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가족을 위해 제정하신 계획이였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의 형상대로 영원한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는 거룩한 부부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후 그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결혼이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관습이므로 언제든지 포기해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악마가 퍼뜨리는 생각입니다. 결혼이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제정하셨습니다. 안정되고 굳건한 가족을 짓기 위해서는 결혼이 굳건하고 영원히 지속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그를 시험하여 물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저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대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찌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려므로 하나님이 짹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자온대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막 10:2~12)

경전에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성실히 이행된다면 성스러운 결혼이 모든 인간의 목적이 될 것이며 이혼이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가정의 불안정을 조장하는 주요한 원인들을 제거해 줄 것입니다.

예수께서 결혼과 이혼에 관해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경전에는 많은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고전 11:11)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결혼에 관해 말한 것에는 베드로가 지적했듯이 “알기 어려운 것”(벧후 3:16)이 있으나 남편과 아내의 이혼에 관해서 그는 분명하게 강조하여 말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린도전서 7:10~11)

결혼과 이혼에 관해 현대 예언



자의 말씀도 경전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결혼에 관해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진실로 나는 거듭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혼을 금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성임된 자가 아니니,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하여 주신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49:15)

1845년 4월 6일 부리감 영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영원 전부터 있었던 진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옆에 아내를 데리고 있지 않는다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읍니다.”(타임즈 앤드 시즌즈, 6권, 955페이지)

다음은 죄셉 에프 스미스 6대 대관장의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젊은이들이 결혼 의식은 인간이 만든 의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의식입니다. 지금히 고귀한 의식으로 그분의 종교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결혼 적령기에 달한 사람은 누구

1. 1839년 11월부터 1846년 2월까지 있었던 말일 성도 정기 진행물.

도 독신으로 생활하여서는 안됩니다. ……결혼이란 인류의 수호자입니다. 이것 없이는 하나님의 목적에 좌절될 것이며 덕은 자취를 감추고 악덕과 부패가 범람하여 이 땅은 헛되고 텅 빈 상태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복음 교리, 5판 「데져렛 출판사, 1939년도,」 272페이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의 완전한 계획을 생각할 때 영원한 결혼을 제정하신 그의 목적은 자녀를 펴뜨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을 지상에서 살도록 육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경전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와같이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한 사실을 말해 줍니다.

“그런고로 남자가 한 아내를 취하고 둘이 한 몸을 이룸이 마땅하니, 이 모든 일은 세상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의 창조에 따라 인간의 수로 가득 채우려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49:16~17)

또 다른 경전에서 주님께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주어진 이유는 “나의 계명에 따라 자녀를 낳고 땅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 또 창세 이전부터 나의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또 저들

이 영원한 세상에서 저들의 승영에 들어가 인간의 영을 낳기 위하여 저에게 주어 졌음이라 이로써 나의 아버지의 사업이 계속되어 영광을 누리게 되시느니라.”(교성 132:63) 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보다 더 심오하고 영예로운 성구를 생각할 수 없는데, 이 구절은 결혼의 목적이 첫째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의 창조에 따라 인간의 수로 가득 채우려 하고” 이로써 아버지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광을 누리게 하며, 둘째 “창세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에 따라 “영원한 세상에서 승영”을 얻는 데 있다고 말해 주기 때문입니다.

결혼과 이혼, 자녀의 생육에 관한 이러한 거룩한 개념을 염두에 둘 때 다음과 같은 현대 예언자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리감 영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 많은 깨끗하고 거룩한 영이 육신을 얻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영들을 위해 육신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방탕과 온갖 죄악에 물들 수 있는 악한 자의 가족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의로운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영들을 위하여 육신을 만들어 주는 것은 모든 의로운 인간의 의무입니다.”(부리감 영의 설교집. [데져렛 출판사, 1943년], 197페이지)

산아 제한에 관해서 죄셉 에프스미스 대관장은 1917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말일성도 회원 가운데서 자녀의 출생을 막으려고 하는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크나큰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남편이나 아내가 그들의 후손에게 어떠한 불순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또한 훌륭한 건강과 활력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산아 제한을 기도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점점 실망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악행이 오늘 날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큰 죄악의 하나라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복음 교리. 278~79페이지)

이 문제에 관해서 대관장단은 최근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산이나 불임에 관해 제의된 법률을 주의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중대한 문제에 관한 법률의 수정이나 확대나 자유방임을 반대합니다.”(워싱턴 주 스테이크 부장들에게 보낸 서한. 1970년 10월 27일)

다음의 말씀은 가족의 안정과 관계되는 많은 성구들 가운데에서 본보기가 될 만한 것들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6)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제로 양육하라”(에베소서 6:4)

베냐민 왕은 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녀를 헐벗고 깔주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어 서로 싸우거나 다투지 아니하고,악마를 섭기지 아니하

리니, ...

“너희는 다만 저들에게 진리를 지켜 신중하게 살기를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움기를 가르치며”(모 4:14~15) “또 시온 또는 조직된 시온의 스테이크 안에 자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그 자녀의 나이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68:25, 28)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 명하였느니라.”

“그러나 진실로 나는 나의 종 프레드릭 지 월리암스에게 이르노니, 너는 여전히 이 정죄받을 일을 계속하고 있느니라.”

“너는 계명에 따라 네 자녀에게 빛과 진리를 가르치지 아니하였나니, 저 사악한 자가 아직도 너를 지배하고 있도다. 네가 괴로움을 받는 까닭은 곧 이것이니라.”

“이제 한 계명을 네게 주노니, 만일 네가 구원을 받고자 하면 네 집에 질서를 세우라. 네 집에 옳

지 아니한 일이 많음이니라”(교리와 성약 93:40~43)

그러면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에베소서 6:1~3)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골로새서 3:18~19)

이러한 경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가족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기도라는 주제에 관한 경전의 가르침에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나는 경전에서 이처럼 자주 언급하고 있는 주제를 생각할 수 있으며, 가족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이러한 말씀을 실천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첫 번째 기록된 대화는 기도였습니다. 경전은 아담과 이브가 예전 동산에서 쫓겨난 얼마 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해 줍니다. “아담과 그의 아

내 이브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전 동산 길에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고 주를 뵙지는 못하였나니, 이는 주의 임하신 곳에 가지 못하게 저들에게 문이 닫쳐 있음이더라.

“주께서 저들에게 저의 하나님을 예배하고……명하시니……”(모 5:4~5)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전은 자주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권고해 왔습니다.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시편 56:16~17)

앨마서 34장에 기록된 앰울레크의 권고에서 다음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희가 집에 거할 때, 아침 낮 밤으로 너희의 권속을 위하여 기도하라”

“뿐만 아니라 너희 골방이나, 은밀한 장소나 광야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라”

“너희가 소리내어 주께 외치지 않을 때는 너희의 복리와 너희 이웃의 복리를 위해 끊임없이 주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라”(앨마서 34:21, 26~27)



예수께서도 혼자, 혹은 그의 제자들과 기도하셨으며, 그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으며 기도의 형식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일의 경륜 시대를 연 예언자



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교성 10:5)

교회가 조직될 당시 주님께서는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이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며 소리를 내거나 은밀하게 기도할 것과 모든 가족의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첫째 되는 의무는 “소리를 내거나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것이었읍니다(교성 20:47)

그렇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의 안정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셨으며 그러한 계획이 경전에 밝혀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계획을 이행하도록 주님께서 도웁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頤



의 첫 번 시현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왔던 것입니다.

교회가 조직된지 2년만에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여 승리자가 되라. 참으로 사탄을 정복하며 사탄의 사업을 받드는 종들의 손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 등산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택한 길에는 협준하고 위험한 곳이 몇군데 있었다.
그들이 이 협하고 위험한 곳에 올라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아들을 불러 세우고
“애야 너는 너의 아버지를 단단히 붙잡았니?”라고 물었다

이 어린 소년은

“아니요 아버지가 저를 꼭 붙잡았어요”라고 대답했다.
이 대답은 깊은 진리를 예증한다.

만약 내가 안전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붙잡는 것에 만 의존한다면
나는 걸려서 넘어질 확률이 많다.
내가 계속해서 잘 길을 잘 수 있게 된것은
나의 아버지가 나를 잘 불들어 주고 계심을 알기 때문이다.

—로버트 브이. 오즈먼트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홀레밍 에이취. 헤벨 회사)

1페니 나타로 사랑

“1

페니만 있다면 저 꽃 한 송이를 살텐데...” 그의 목소리는 자신이 넘쳐 흘렀으며 그의 눈은 만족스러운 듯이 반짝거렸는데 이는 그가 벌써 일학년이 되었고 글을 읽을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떠듬떠듬 읽는 정도입니다. 바구니 위에 굽히 써서 붙여 놓은 표시는 그안에 담긴 것들이 각각 1센트라는 것을 말해 주는 데 이것이 바로 그가 읽을 수 있는 글자 중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넌 그걸 사서 무얼 하겠니?”하며 대단히 사고싶은 표정을 한 그의 옆줄을 보며 물었습니다.

“방에다 두지요”하며 그는 왜 그런 뻔한 질문을 하느냐는 듯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려럼”하고 대답을 하며 지갑을 뒤적였습니다. “풍선껌을 사는 것보다야 낫겠지.” 나는 그에게 동전 한닢을 주었으며 그는 즉시 그걸 받아 가지고는 꽃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가게집 아저씨는 어색할 정도로 긴 줄기에 분홍색 꽃이 있는 푸라스틱 꽃 한 송이를 주었습니다. 나는 그가 택한 이 연분홍색의 꽃을 빨갛고 흰 그의 방과 대조해 보았으나 국민학교 1년생이라면 보통은 색깔의 조화를 잘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야채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그는 조그만 갈색 가방에 꽃까지 들고 있었으므로 우리는 자동차가 있는 곳까지 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걸을 때마다 가방 위로 불쑥 솟아 오른 꽃이 즐거운듯이 앞뒤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쥬리의 생일 선물로 주겠어요.”

“쥬리의 생일 선물로 무얼 준단 말이니?”하며 나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꽃말이예요”하며 그는 자기가 특별히 산 꽃에 대해서 내가 벌써 알고 있는 것이 못마땅한듯이 통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뿐인줄 아세요. 분홍색이 아니예요. 누나 방엔 아주 잘 어울릴거예요. 아마 누나는 이 꽃을 선반 위에다 올려 놓을지도 몰라요”하며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 참 좋은 생각이구나. 그렇지 만 생일은 아직 멀어는걸.”

쥬리는 그의 큰 누나로 나이는 17세이며 예쁘게 생겼습니다. 가끔 바쁜 때가 있지만 조용히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엄마 그걸 그냥 주기만 하면 되지요”하며 그는 마침내 결심이라도 한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특별한 이유가 없이 이걸 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요?”

“물론 알겠다”하며 나는 막히는 목소리를 감추려고 급히 침을 꿀꺽 삼키면서 그에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 말이지 특별한 이유가 없이도 누구에게 그런 선물을 준다면 아마 가장 훌륭한 선물이 될거야.”

내가 장에서 사온 야채를 내리는 동안 우리는 서로 속삭이면서 계획을 짰고, 그는 난로가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쥬리를 힘껏힐끔 쳐다 보았습니다.

나는 마침내 찬장 바닥에 있던 통을 치워버리려고 무릎을 굽히며 앉았다. 내 시선이 그와 마주 치자 그는 “엄마 이 꽃을 어떻게 주지? 무어라고 말하면서 줄까?”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좀 흥미가 있는듯 했지만 수줍었고, 간절히 주고 싶었지만 선뜻 나서질 못했고, 용기를 냈지만 그래도 좀 두려웠습니다.

“그냥 주면 돼. 그리고 이렇게 말해봐. ‘누나가 좋아서 이걸 샀어. 받아’ 그런 다음에 누나에게 입을 마주어 주렴.”

“아이 싫어요!”그는 마치 교통 순경 아저씨가 자동차를 정거시키는 모습으로 팔을 앞으로 뻗치며 “입을 맞추는 건 싫어요!”하고 대꾸했습니다.

그는 다른 방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 가서는 그것을 주는 순간 엄숙한 표정을 지어 보이려고 연습을 하는듯 했습니다. 양 입가를 위로 치켜 올리고 눈은 춤을 추는듯한 모습을 하고 그 선물은 손에 꾹 쥐고 누이 앞에 섰습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꽃을 받아 든 누이가 무슨 말을 하는듯 했습니다. 이후고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희색이 만면했고 지금까지 우울했던 모습은 자취를 감추고 미소가 입가에 서렸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작은 어깨를 자기 품에 끌어 안고 즉시 불에다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동생을 끌어 안고 한 손에는 선물로 받은 꽃을 들고 있었는데, 나는 긴 줄기에 어색하게 달려 즐거운듯 혼들리는 연분홍 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다섯 자녀의 어머니인 로미크 자매는 몇 년간 작품을 써 왔으며, 이번 작품이 처음으로 세상에 발표되었다. 그녀는 산리안드로(캘리포니아) 스테이크 산 로렌조 제1와드에서 상호부조회 제2보좌로 봉사하고 있다. 頤

부모에게 드리는 어느 젊은이의 말

페리 닥트워러

유

타 주립 대학을 졸업한 닥트워러 형제는 현재 미 육군에 복무중이다. 그는 대만(1966~68)에서 선교사로 봉사한 적이 있으며 지금은 유타 주 카체 이스트 스테이크 로간 제10와드의 회원이다.

공자¹의 제자인 증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 명덕을 천하에 밝히려는 이는 먼저 그 나라를 다스렸고, 그 나라를 다스리려는 이는 먼저 그 집안을 바로 잡았고, 그 집안을 바로 잡으려는 이는 먼저 그 몸을 닦았고……”

“몸을 닦은 후에야 집안을 바로 잡았고, 집안을 바로 잡은 후에야 나라를 바르게 다스렸고, 나라를 바르게 다스린 후에야 세상이 화평하게 되었다.”

이런 말은 오늘날과 다른 오랜 옛날에 쓰여졌습니다. 중국의 봉건 제국이 멸망할 당시에 쓰여진 것입니다.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혼란, 전쟁, 기근, 절망 등이 인간으로 하여금 화평과 통일, 풍요, 질서를 갈구하게 했던 것입니다.

증자는 평화의 원인, 근본, 촉진제로서 환경 조건을 들지 않고 인간의 성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이러한 인간성의 수양은 과거의 전통과 윤리에 고착함으로써 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인격의 수양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언자의 가르침을 통해 옵니다.

이렇게 하여 평화란 복잡한 사회 관계를 통해서 외부로 빛을 발하는 개인의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평화를 인도하고 촉진하지만 역시 평화란 궁극적으로 개인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 화평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대다수의 인간이 바라는 질서있는 세계 건설을 위해 강력한 힘이 됩니다.

고대 중국의 성현은 가족이 그러한 세상을 이루는 기초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말은 사회관계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 보다 훌륭한 세계 건설을 위해서는 둘째의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가족 단위의 중심 위치에 있는 가장은 전략적인 요

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릭 푸럼²이 말한 바와 같이 아버지는 “사상의 세계, 인간이 만든 물건들, 법, 질서, 규율, 여행, 모험의 세계를 대표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가르치는 사람이며 세상으로 가는 길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란 부모가 함께 자녀와 관계를 맺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인류사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자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대부분은 가족 관계를 개선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자신의 성품이나 인간성이나 내적인 평화를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부모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자신을 수양하고 다른 사람을 돋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부여되는 모든 영예를 받을만한데 이는 중국 성현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그 위에 기초를 두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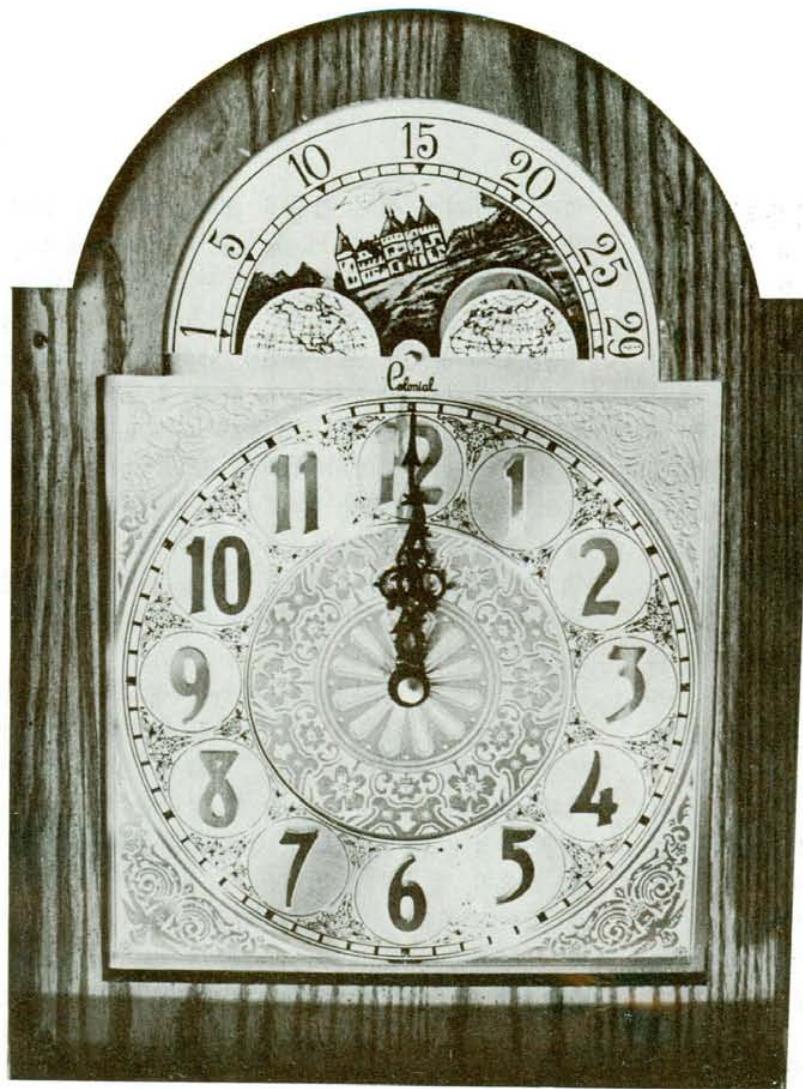
젊은이들은 부모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은 진실함을 바라고 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은 진실되고 수양을 쌓고 인정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서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어떠한 노력에 있어서처럼 부모가 되기 위해서도 훈련, 인내, 집중, 관심 등을 최대로 활용하고 발휘하여야 합니다.

훌륭히 교양을 쌓은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으며, 모든 세상의 지도자가 하고자 원했던 것보다 더 훌륭히 인류를 위해 공헌할 수 있습니다. 평화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 화평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위대한 업적을 달성한 것이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을 돋거나 인간의 자녀들을 돋는다는 것은 참된 위대함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

1. 공자—고대 중국의 철인. 개인의 미덕, 가족에의 협심, 정의를 강조함.

2. 푸럼, 에릭(1900~), 독일태생 미국인 정신분석 학자.



모든 필요를 위한 한

허버트 에프 무레이

“한”

남성은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직업에 대한 책임감도 있습니다. 그는 조화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이 신해롤드 비 리 형제의 말씀입니다.

말일성도는 어떻게 하여 교회에 봉사하며, 직장 일을 충실히 이행하며, 사회에 봉사하며 동시에 그의 가족을 위해 적절히 시간을 내며 정열을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많은 교회의 회원들은 그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하여 그들의 시간과 능력을 적절히 관리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적이며 영적인 업적을 밟으며, 지상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왕국에서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그러한 것을 확고히 믿으므로 즉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사람들이란 교회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단한 열정을 지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시간과 책임을 잘 조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의 순서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행하고자 계획한 일의 중요성을 순서대로 열거할 수 있다면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가정 생활에 관한 흥미로운 견해를 최근에 교회의 주일학교 회장으로 부름받은 심장 전문의인 러셀 엠 넬슨 박사는 다음과 같이 피력했습니다. 그는 아홉 명의 딸과 한 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진지하고도 성공적인 가정생활의 필수 요인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을 쌓는 것입니다.”

“대가족인 경우 어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녀에게 빼앗기고 마는데 이것으로 인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방해를 받는다면 자녀들을 아무리 잘 키운다 해도 완전히 성공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라나면서 선교사도 되고 대학에도 가며, 결혼도 하며,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을 떠나는데, 그러는 동안 부모들 사이의 사랑이 식어진다면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러한 상태로는 영원한 세상에 잘 약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은 동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정원과도 같습니다. 돌보지 않는다면 곧 죽으론 표시가 나타납니다. 자녀를 합당히 키우며 직장에서 충실히 교회에서 맡은 책임을 다하면서, 우리는 또한 부모간의 사랑을 더욱 강하고 활발하게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십이사도의 지역 대표이며 네 자녀의 아버지인 하워드 비 앤더슨 형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못하며 교회의 일을 변명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을 보아 왔습니다. 나는 직장 일을 가족이나 교회를 돌보지 못하는 구실로 삼는 사람들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참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텍사스 루브복 스테이크 부장이며 여섯 자녀의 아버지인 푸랭클린 에스 곤자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교회에서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성실한 말일 정도는 하나님께 가족을 도와 달라는 특별한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가 훌륭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보다 열심히 효과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곤자레스 형제는 필요한 모든 일의 우선 순위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인생의 초년기에 개인의 사업이 교회 일이나 가족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와 가족은 실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교회를 위해 보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고 혼히들 말합니다. 가정의 밤을 갖고, 주님의 계획을 준행함으로써 우리는 가족과 함께 오락과 휴식의 시간을 갖고 다과를 들며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유타 프로보에 사는 청녀 상향회 회장이며 12자녀의 어머니인 라네브 킴볼 자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집에 돌아 오면 그들이

즉시 말하려고 했던 것들을 모두 들어주기 위해서 항상 집에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계획보다는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언제나 도와 주십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도움과 인도를 간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킴볼 자매는 다음과 같이 말을 계속합니다. “가정의 밤은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일성도가 되고 이러한 문제에서 우리를 인도해 줄 예언자를 모시고 있는 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야 2:18참조)는 몰몬경의 성구를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야 말로 가치관을 개발시켜 주는 데 있어서 우리를 인도해 줄 복음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유가 됩니다.”

일리노이 주 에반스턴에 사는 가정 주부이며 2자녀의 어머니이며 상호부조회 회장인 루스 그로버 자매는 가정의 밤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면서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교회에 관한 강연을 한 경험을 회상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다음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그녀가 소개한 가정의 밤 교재였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은 이처럼 참되고 영감에 찬 프로그램을 갈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리티쉬 콜럼비아 반쿠버에서 감독겸 신학 연구원 책임자로 있는 세 자녀의 아버지인 더블류 폴 하이드 형제는 아내도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 줍니다. “아버지가 사업이나 교회의 책임 때문에 다소 가족의 시간에 제약을 받게 될 때 아내는 훌륭한 태도로서 자녀들의 요구를 들어 주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멀리 여행을 떠나야 했는데 한 아들이 ‘아빠 오늘 밤에도 또 어딜 가요?’라고 물었었습니다. 이 때 나의 아내는 ‘얘야,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아빠가 특별히 부름을 받으신 걸 우리는 기뻐해야지’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내가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이처럼 영적인 느낌을 가지고 떠나게 된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부모간에 일치된 마음과 협조가 자녀를 교육시키고 가족의 일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도입니다.

일의 순서를 정하고 우리의 시간과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다”고 하신 벡케이 대관장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사랑의 의미

크라크 스웨인



사

랑으로 인하여 시가 쓰여졌고 노래가 불리워졌으며 산이 정복되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살인이나 자살 행위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었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언제나 정확한 방법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잘못된 생각의 하나는 사랑이란 단순히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느낌 혹은 신비에 쌓인 힘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면 걸잡을 수 없이 빠져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사랑이 신비할 정도로 나타나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므로 그것이 떠날 때는 속수무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어느 여성의 상담을 하기 위해서 필자를 찾아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사랑이 식어졌고 외간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와 새로 알게 된 남성은 각자

가 이혼을 해서 새로이 결혼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남녀는 모두 많은 자녀가 있었고 모두 합치면 10명이나 되는데,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그들의 반려자와 자녀를 버리고 단순히 사랑한다는 이유로 엄청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 외간 남자와의 사랑을 끊지 못해 안절부절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자기의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될지 모르겠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온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아내와 이혼을 생각 중인데 그는 그의 이러한 느낌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난 더 이상 아내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참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는 신비로운 힘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우리 앞에 나타난 어떤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다른 사

람을 대하는 한 방법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지배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사랑이란 정의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고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며, 사랑이 떨어질 함정이나 신비한 느낌이나 힘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대로의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정의하고 설명하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상대자가 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상대방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음 속에 다짐해야 할 중요한 특성의 하나는 사랑을 받는 것은 물론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어머니의 팔에 안겨서 자라나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아

무리 많은 사랑을 기울인다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사랑을 받은 아이는 육체적인 성장과 인격의 형성에 뒤지게 됩니다.

어린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어야 한다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그것이 그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자존심, 감사, 존경, 사랑을 개발 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애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타인에 대한 사랑의 도도 커지게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에 대한 결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면서 매사를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사람입니다. 자신과 다투고 있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갖지 못합니다. 그는 내심의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린 아이에게 자신에 대한 사랑을 개발시켜 준다면 그는 내심의 갈등을 느끼지 않고 남에게 기꺼이 친절과 사랑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경합니다. 존경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한 마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인도 때로는 어린이의 의사에 반대되는 바를 어린이에게 강요할 필요가 있으나 다 자란 성인들이라면, 더욱이 그들 사이에 사랑이 있다면, 강요란 있을 수가 없는 것

스웨인 박사는 몬타나 주립대학에서 결혼과 가족생활을 담당하는 부교수이며 지방법원의 결혼 상담인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헤네나스테이크 보오즈맨 와드에서 신혼반 지도자와 아론 신원 성인반 전체서기 보조로 봉사하고 있다.

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관점을 따르도록 설득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행하도록 확신시켜야 하나 우리가 진실로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강제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도 사랑하는 능력이 많은 수도 있으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반응하는 능력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는 우리의 반응을 개선하도록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일종의 감정이 입으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느끼는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우리가 이해할 바를 그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복리, 진보,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그에게 주려고 합니다. 사랑이란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이나 더욱 중요한 것으로 자기의 시간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성탄절 선물로 아들에게 준 것 가운데 다음과 같은 편지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음 한해 동안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은 하루에 한 시간을 너를 위해 주는 것이란다.” 이것이야 말로 사랑의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그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을 행하지

않으며 겸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쉽게 성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씨를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보다도 자신에게 더 해로움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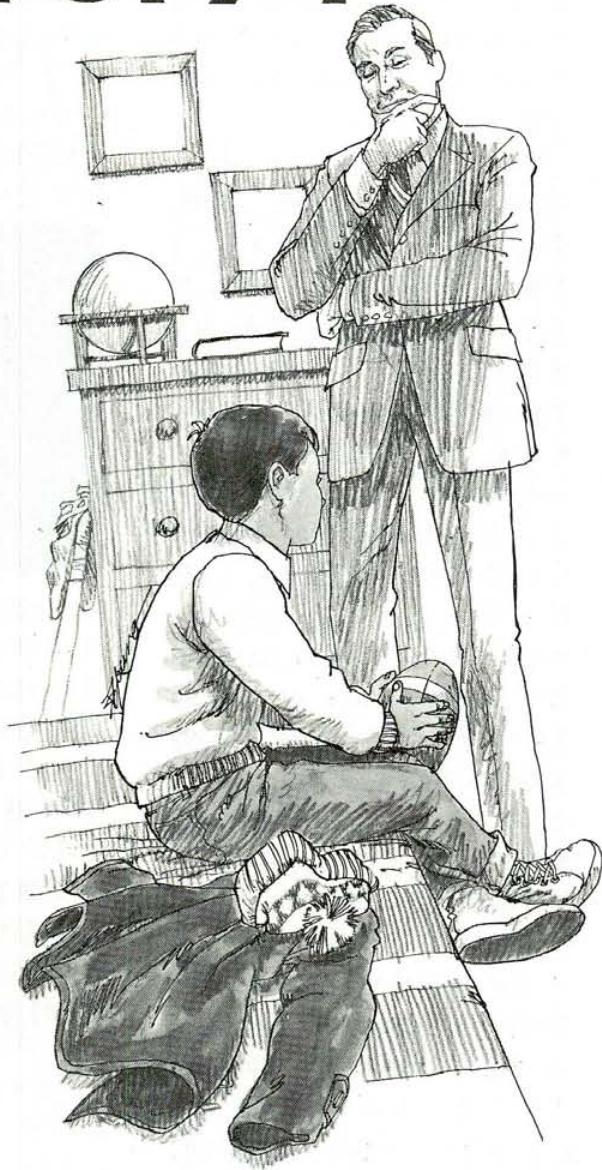
참된 사랑이란 할머니나 할아버지 사이이건, 신혼 부부 사이이건, 어머니와 자식의 사이이건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 관계안에서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관심, 존경, 반응, 감정이입, 걱정, 주는 것, 받는 것, 나누는 것, 용서하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 듣는 말은 모두 동작을 요하는 말이라는 점에 유의합시다. 사랑은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너는 지금까지 내가 너에 대해 지닌 모든 사랑을 모조리 깨뜨려 버렸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랑의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는 아무 것도 사랑을 죽여 없앨 수는 없기 때문이며, 만일 사랑이 죽는다면 그 것은 자살을 범한 것인데 이는 사랑이란 사랑을 받는다는 것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것으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타인의 태도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느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매력있기 때문에 쉽게 사랑을 얻을 수도 있으나 우리의 사랑은 타인의 성격이나 행위로 결정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느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眶**

선택하기

케네스 더블류 골프리



1972년 10월호



어느 날 저녁 내가 사무실에서 집에 돌아 왔을 때 둘째 아들이 조용한 얼굴을 하며 대문에서 있는 아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방으로 들어 갔으며, 아내는 국민학교 축구팀의 선수

인 둘째 아들이 다음주 수요일 오후 4시에 특별한 시합을 갖게 되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4시라면 아내가 와드 초등학교를 지도하는 날이었습니다. 초등학교 회장이 되면 여러 가지 의무가 따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홀륭한 모범을 보이며, 다른 가정을 선으로 이끌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골프리 박사는 웨버 신학연구원의 책임자이며 오그렌 지역의 세미나리 지역담당자이다. 그의 기사는 교회나 기타 여러 가지 출판물에 게재된 바 있다. 그는 현재 웨버스테이트 칼리지 스테이크의 고등 평의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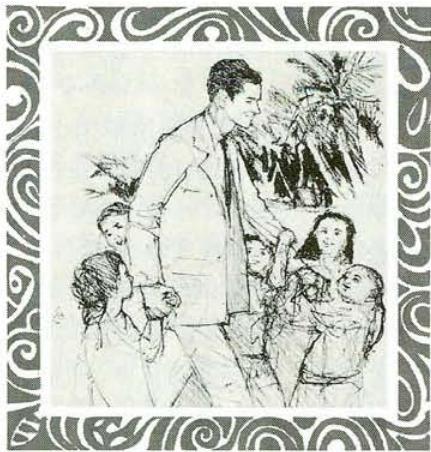
“레이비드는 무어라고 합니까?” 하며 나는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물었습니다.

“축구를 하겠대요.” 하며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다시 심각한 표정을 하며 “그렇지만 그 애는 초등학교에 나가야 해요.” “당신이 말씀 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결단과 아들의 자유의지에 사로잡혀 있던 나는 아들을 불러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놀란듯이 보였으나 이내 안심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축구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다시 긴장하는 것 같았고 초등학교를 생각하고 불안해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침례시 맷은 성약을 다시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는 기꺼이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고, 그가 사신대로 또는 그가 원하시는대로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또한 이웃의 무거운 짐을 지며 슬퍼하는 사람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내가 아는 최선의 방법대로 교회의 가르침을 실천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이행하기가 쉬우며, 갈등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며, 어려운 결정이 우리 앞에 놓이지 않게 된다고는 약속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행한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종교적인 문제로 세계 참피온 쟁탈 경



나는 그들이 영국의 동요를 마우리어로 바꾸어 나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뉴질랜드의 어린이들이 그들의 새로운 선교사에게 안겨다 준 이 놀랄만한 축복에 대해 나는 영원히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또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선교사들은 항상 어느 마우리 가정에서 밤이면 모여 잠을 잤는데, 이들은 그곳이 안전히 잠을 잘 수 있는 곳이며 주님의 영이 거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가정에는 11명의 자녀가 있었으며 이들은 교대로 가족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진지하게 기도하였으며 언젠가는 신권의 권능으로 모든 가족이 혼세와 영원을 위한 인봉 의식을 받도록 신전에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가정은 너무도 가난하였기 때문에 오천마일이나 멀리 떨어진 하와이 신전에 온 가족이 갈 차비를 충분히 마련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의 신앙만은 훌륭했고 전 가족의 기도는 끊임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과연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하와이로 신전 여행을 떠날 자금을 결코 마련하기 어려운 이 마오리 가족이 사는 마을에서 불과 50마일 떨어진 곳에 새로운 신전이 건립될 것이라는 사실을 데이비드 오 벡케이 대관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을 때 뉴질랜드에 있던 모든 선교사들은 크나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족은 베키라는 어린 친구를 잊지 않을 것인데 그 아이는 우리가 모두 자기 집에 와서 가정의 밤을 가져 줄 것을 청했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아버지가 가정의 밤에 참석할 것을 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아버지가 교회의 회원이 될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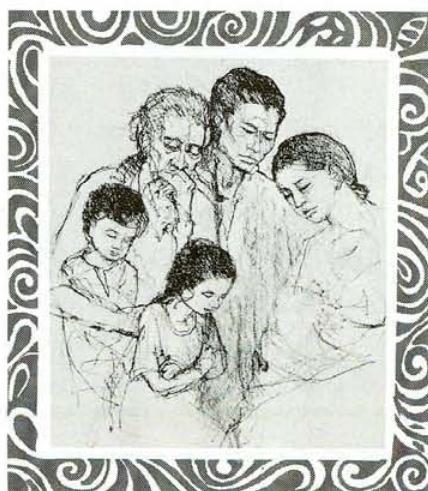
베키의 아버지께서도 우리 가족이 자기의 집에 와서 가정의 밤을 가져 줄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과와 게임과 가족 기도가 있는 다음 영적인 공과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작별 인사를 했을 때 베키는 나를 쳐다보며 심프슨 감독님 한 가지 청이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말해 보렴” 하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빠를 침례해 주실 수 있지요?”

어린 베키의 희망과 신앙에 가득찬 그러한 간청이 아버지의 마음 속 깊이 받아 들여졌으며 몇 주가 지난 후에 그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18: 3)고 하신 말씀은 당연하신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



뉴질랜드의 친구

紐
西
蘭

비키 에이취 베지 1972년 10월호

어

느날 쿠페라고 불리우는 한 어부가 그의 친구 가후에와 가족들을 커다란 카누에 태워 가지고 하와이 키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깊은 바다를 향해 서서히 출범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해 오는 이야기로는 이들이 그들의 낚시 미끼를 훔쳐간 거대한 문어를 쫓아 갔다고 합니다. 몇 주 동안 이름도 모르는 심해에서 헤매다가 쿠페의 아내는 낮게 뜯고 흰 구름 덩어리가 무섭게 밀어 닦치는 듯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구름이다”라고 소리쳤고 쿠페는 이렇게 해서 그들이 착륙한 땅을 아오테아로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절고 흰 구름의 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폴로네시아 사람들이 900년 경에 뉴질랜드를 발견하게 된 경로를 말해 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쿠페와 같이 갔던 사람들은 아오테아로아에 머물지 않고 이러한 사실을 알리려 하와이키에 돌아 왔습니다.

그후 400년이 지난 다음 몇몇 가족이 큰 카누를 타고 아오테아로아를 찾아 갔고 그곳을 그들의 보금자리로 삼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1642년 화란의 탐험가 아벨 타스마¹는 이 섬과 마오리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섬에 뉴질랜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1769년 제임스 쿠크² 대장이 이 섬을 찾은 이래 영국에서 많은 이주자가 이곳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마오리인과 파케하스(백인)는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뉴질랜드는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곳입니다. 인근 국가로 호주가 있으나 거리상으로 1300마일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섬의 북쪽에 있는 그로우월 그로토는 천장에 수많은 개똥벌레가 있는 깊은 동굴입니다. 이것들은 청록색의 작은 등과 같이 빛을 발합니다. 이런 개똥벌레를 보려면 보우트를 타고 동굴속을 들어 가야 합니다.

1. 타스마, 아벨 찰스존(1603~1659) 화란의 항해사. 타스마니아와 뉴질랜드를 발견함.

2. 쿠크, 제임스(1728~1779) 영국의 태평양 탐험가.

작은 소리만 내도 이 개똥벌레는 빛을 죽이고 맙니다.

타우마타화카탄기 한 가코아우아우아타마테아투리푸 카카피키마운가호로누크포카이웬누아키타나타후란 세상에서 가장 긴 지명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섬의 북쪽에 있는 양치는 언덕에 마오리인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그 뜻은 세계일주 여행자인 타마테아가 그의 사랑하는 연인에게 피리를 불었던 언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까?

뉴질랜드의 쌍둥이 섬인 북섬과 남섬에 있는 나무나 꽃의 75퍼센트는 세계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뉴질랜드에는 뱀이 없습니다.

키이위 새는 달걀의 여덟 배나 되는 큰 알을 낳습니다. 아버지 키이위가 두달 반 정도 알을 품어 새끼를 납니다. 그리고 새끼가 자신을 돌볼 수 있을 때까지 아버지 키이위는 새끼를 보호합니다. 키이위는 뉴질랜드의 상징적인 새입니다.

스테반 섬의 개구리는 뉴질랜드에만 살고 있습니다. 이 개구리는 물이 없어도 살며 아주 몸집이 작습니다. 이 개구리는 올챙이가 되지 않고 바로 개구리가 됩니다.

남섬에는 눈이 녹는 법이 없는 남 알프스가 있습니다.

거위의 크기만한 아름다운 흰색의 바다 새 가넷트는 100피트의 다이빙으로 유명합니다. 이 새는 공중에서 시속 90마일의 속도로 곧게 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이 새가 물 속으로 내려 닦치는 충격으로 6피트 수중에 있던 물고기들이 기절하곤 합니다. 카넷트는 물 속에 있는 고기에 뛰어들어 입에 물고는 표면으로 솟아 오릅니다. 카넷트는 혜엄도 잘치며, 어떤 놈은 수중 80피트까지 혜엄을 쳐 들어 갑니다.

뉴우질랜드는 총 면적이 27만 평방킬로가 되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

레이맨인 사뮤엘

마벨 존스 개봉 옮김
아놀드 후라이버그 그림

사

뮤엘은 슬픔을 안고 제이라헤를라 땅을 떠났습니다. 그는 니파이인들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권고하면서 여러 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그들의 성 밖으로 몰아냈고 그는 자기의 고향을 향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사뮤엘에게 들렸으며, 다시 제이라헤를라에 돌아 가서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성내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그는 성벽 위를 기어 올라가서 팔을 벌리고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나는 레이맨인 사뮤엘이라.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전하여 주시는 말씀을 전하노라.”(힐 13:5)

말을 듣지 않는 자에게 사뮤엘은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주리니, 오늘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백성을 구하시려 오시리니, 이제 그가 강림하실 때의 표적을 너희에게 주리라. 보라 그가 오실 때에 하늘에 큰 빛이 있어 저가 오시기 전날 밤은 어둡지 아니할 것임에, 사람들에게는 마치 낮과 같을 것 이요, 한낮과 밤과 그 다음 낮이 모두 한날같아 밤이 없으리니. 너희는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알아 두 낮과 한 밤이 지남을 분명히 알 것이로되 밤이 어둡지 아니할 것이다. 주가 나시기 전날 밤이 그려하리로다. 너희가 전에는 보지 못하던 새 별이 둇으리니, 이것이 또한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요, 하늘에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있어 너희를 당혹케 하며 놀라게 할 것이로다.”

사무엘의 말을 믿고 침례를 받고자 한 사람들도 많았으나 사뮤엘은 레이맨인이었고 주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대로 니파이인들의 사악함을 꾸짖는 거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에게 화를 내고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벽 위에 있는 그를 향해 돌을 던지고 활을 쏘아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그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뮤엘을 잡으려고 했으나 그는 성벽에서 뛰어내려 저의 땅으로 돌아가 저의 백성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 니파이인들은 사뮤엘의 소식을 더 듣지 못하였습니다. ■





인디안은 결코 잊지 않는다

팔

월의 뜨거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토미와 엘리야는 큰 목화나무 그늘 아래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30여두의 가축을 보살피는 임무를 받았는데, 이 가축들은 반 마일쯤 떨어진 상류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었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일이 매우 중요할거야”라고 토미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지만 재미있는 일은 못되지.”

바로 그때 이 가축들이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놀란듯한 모습으로 움직이는 소떼들을 이들은 보았습니다. “누가 소들을 괴롭히는 모양인데 가보지 않겠니” 하며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 두 소년은 소떼가 있던 곳까지 달려 갔고, 여러 명의 인디안들이 그들을 향해 오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서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악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토미는 오마하 인디안들이 겨울 동안 그곳에 몰론 개척자들이 머물도록 허락해 준 사실과 그들의 물과 채목을 사용하도록 허가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까지 다가 갔을 때 한 젊은 인디안이 한 발자국 다가 서서는 서투른 영어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제 밤 우리의 척 아이오와스가 우리를 공격했다. 추장과 나

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냥을 떠나고 없었다. 아이오아스는 우리의 가축과 식량을 모두 훔쳐갔다. 그들은 여자와 어린이들에게도 부상을 입혔다. 그들은 추장을 거의 죽이다시피 해 놓고 달아났다. 도움을 받지 못하면 추장은 죽을 것이다.”

토미는 추장을 위해 인디안들이 만든 버드나무 침대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도움을 청하려 가겠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도 가겠어”하며 엘리야도 나섰습니다.

그 젊은 인디안은 엘리야의 어깨에 손을 대면서 “당신은 이 소년이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기다리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토미는 엘리야의 안전이 자신의 손에 달렸다는 것

을 알고 원터 퀘터즈를 향해 2마일의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 갔습니다.

그는 먼저 그의 감독의 집으로 갔으며 일어났던 일을 보고했습니다. “인디안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내가 사람을 데리고 돌아 올 때까지 엘리야를 데리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하며 그는 말을 맺었습니다.

감독인 몰리 형제는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할가를 생각하면서 토미를 안심시키려고 그의 어깨를 두들겨 주었습니다. “먼저 브리감 영을 만나야겠구나”라고 그는 단안을 내렸습니다. “그는 강뚝에 계실거야. 넌 빨리 내 말을 타고 내려 가거라. 난 이곳을 대강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하겠다.”

강뚝은 그곳에서 12마일이나 멀어져 있었으며, 토미는 한 시간만에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브리감 영이 그곳에 있었고 그는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인디안을 도와야지. 하지만 엘리야가 걱정이구나. 네가 가능한한 빨리 그곳에 가야겠다. 너는 네 마차를 물고 감독 몰리 형제는 그의 마차를 물고 가도록 해라. 이 두대의 마차라면 인디안들을 원터 퀘터즈까지 데려 올 수 있을거야. 우리 집으로 데려오도록 해라. 집에서 만나자.”

감독 몰리는 토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대의 마차를 물고 인디안과 엘리야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들이 인디안이 있는 곳에 왔을 때 엘리야가 뛰어 나오며 토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처음에는 내가 달아날까봐 겁을 내더니 내가 샤쓰를 벗어 넷풀에 적셔 가지고 주장의 머리를 식혀 주자 안심을 하고 나를 믿었어.”

“네가 무사하니 반갑구나” 하며 토미가 말했습니다.

몰리 감독과 젊은 인디안은 주장은 토미의 마차에 실었으며 이들을 다시 원터 퀘터즈로 돌아 갔습니다. 심한 상처를 입은 또 다른 인디안들은 모리의 마차에 탔습니다. 나머지 인디안들은 마차 옆을 따라 걸어 갔습니다.

마차는 해가 질 무렵에야 브리감 영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곧 인디안 주장이 특별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토미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토미야 집에 가서 어머니께 이 인디안 주장은 집에 데려다가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치료를 해 줄 수 있겠는지 여쭈어 보거라.”



토미는 즉시 집으로 달려 갔습니다. 그는 잠시 후에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어머니는 “물론 치료를 할 수 있고 말고요.”라고 쾌히 승락하셨습니다.

브리감 영도 미소를 지으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디안은 결코 친절을 잊지는 않는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한 주 동안 토미와 어머니는 정성껏 간호를 했습니다. 이 인디안은 너무 중환이었으므로 끊임 없는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토미와 어머니는 밤낮으로 침대 옆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 말도 없이 이 인디안 주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이제 좋다. 난 우리 백성에게 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원터 퀘터즈를 떠났으며 그곳에 머물던 모든 인디안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얼마 안되서 토미는 어머니께서도 회복이 어렵다고 걱정하시는 괴혈병에 걸렸습니다. 뜻밖에 인디안 주장이 이 집을 찾아 와서는 토미의 어머니에게 서양고추냉이를 주었습니다. “이걸 같아서 물에 타 먹이시오. 곧 나을 것이오.” 고맙다는 인사 말을 받지도 않고 그 인디안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 서양고추냉이는 토미에게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후로는 괴혈병을 앓는 사람들은 이것을 약으로 복용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주장은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지요.”라고 어느 날 토미가 물었습니다.

“그래 잊지 않고 있단다. 우리도 고마움을 잊지 말자. 토미야.” 하시며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온 힐라리



간증을 얻고 이를 지속하는 방법



1972년 10월호

“요

셉 스미스란 환상적인 생각에 빠진 사람이다. 그의 말에 진리가 없다.” 이러한 말은 고등학교 시절 나와 가장 친하던 친구가 나에게 한 말입니다.

그의 이러한 말은 요셉이 본 첫 번 시현에 관해서 내가 그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 준 후 그 반응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내 친구는 그의 부모들이 정리해 놓은 참고 서적을 보이면서 그의 의견을 실증해 보였습니다. 사실 그 책에는 그의 의견을 뒷받침할만한 분명한 내용이 있었읍니다. 확실히 13세 소년이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는 진리의 근거보다는 도서관의 책이 더욱 믿을만 했을 것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에 있어서 처음으로 내가 사랑하고 믿던 사람들이 가르쳐 준 모든 것을 의심해 보았습니다. 초등협회를 다니던 2년 동안은 그러한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진리였았습니다. 교사님들은 훌륭하셨으며 나는 그들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도 갑작스럽게 지금까지 나를 안정시켰고 내 마음 속에 차분히 정리되었던 모든 것이 공격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조만간 그러한 순간은 모든 일상인들에게 오게 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믿음이 끝까지 지속된다면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한 의심없는 믿음이나 어린 시절의 신앙은 차츰 사라지더라도 결국은 개인적인 확신으로 대치됩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의 보좌였던 히버 시이 킴볼은 교회가 주요한 사회 문제나 근본적인 교리 문제로 공격을 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예견하였습니다. 그는 교회의 각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야기될 어려움을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이 사업의 진실함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란 바로 그런 성격이므로 개인적인 지식이나 간증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낙오가 되기 쉽습니다.빌려온 빛으로써만 살 수 없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신앙의 불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러한 빛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올손 에프 휘트니, 히버 시이 킴볼의 생애[북크래프트사, 1967년] 450페이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반적으로 뒤바뀔 날이 머지 않아 오게 될 것이며, 몇년 전에 그토록 세상을 휩쓸던 “하나님은 죽었다.”는 유행어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십대와 청년의 침례가 다

심프슨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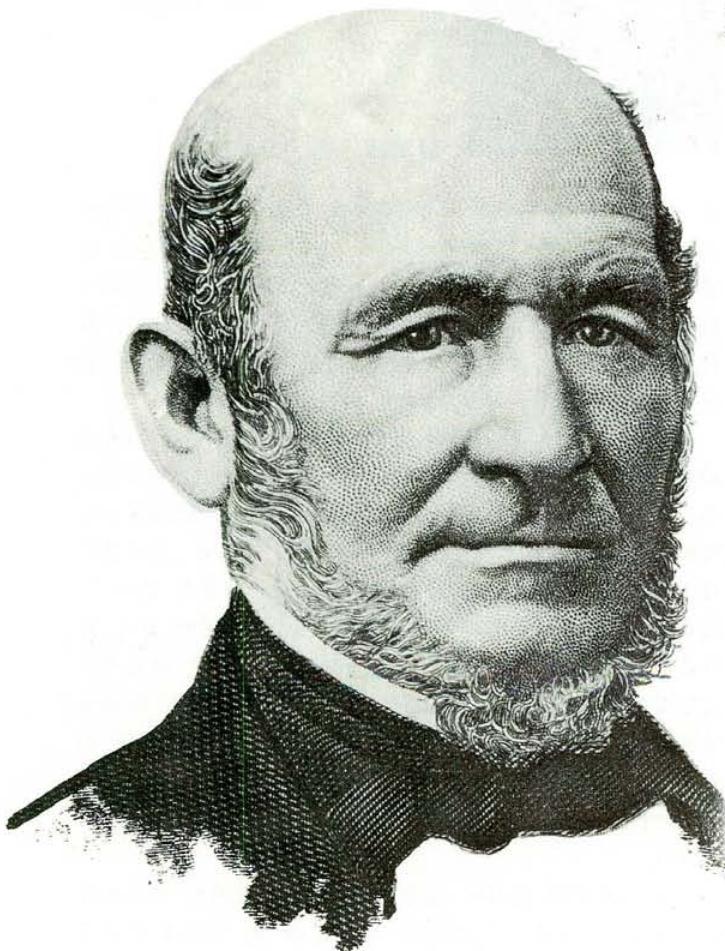
른 어떤 열령 구름보다 단연 우세한 수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개종자가 교회에서 자라난 젊은이나 신앙이 그들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도 교회에 관해 더 많이 알고 있으며 더 강한 간증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위대한 말일의 사업에 대한 확고하고 영원한 간증은 와드 내에 있는 여러분의 감독단이나 대제사 구름에게 단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간증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은사입니다. 14세의 어린 소년이 충분한 이유로 이 경륜의 문을 열도록 부를반았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안정되어 있지 않았읍니다. 그는 온순한 사람이었읍니다. 그는 젊었으며 신앙심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는 흔히 회의와 의심에 빠지기 쉬운 어린 시절의 신앙에서 초연한 입장을 취할 수는 없었읍니다. 내 생각으로는 젊은 시절이란 신앙의 씨앗이 깊이 뿌리를 박고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때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가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물론경이 영감으로 찬 책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이 교회를 예언자가 인도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면 간증을 찾겠다는 그의 태도는 진지하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후에만이 그 사람은 빛과 진리를 추구하려는 자세가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간증을 얻고 이를 계속 키워가는 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강한 욕망, 탐구, 합당하게 살려는데 필요한 자기 훈련이 없이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지 않습니다.

나의 젊은 10대 시절은 내가 종종 대화를 나누는 젊은이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읍니다. 그들은 흔히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나에게 확실한 것을 알려주신다면 나는 주님의 사업을 위해 내 온 생애를 바칠 수 있을텐데...” 기적 위에 세워진 간증이란 아주 천박해서 그와 같은 기적이 계속 따라야 지속될 수 있읍니다. 그러한 것은 히버 시이 킴볼의 말처럼 온갖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간증을 얻는데 적합한 영속적인 과정이 되지는 못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도 십대의 소년 시절에 이러한 정신적인 진보 과정을 거쳤읍니다. 그는 유타 주 헨트스



빌에 실던 어린 시절에 나무 숲속으로 들어 가서 주님의 사업의 진실함에 대한 간증을 얻기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맥케이 대판장이 하신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내 온 정성을 다하여 복음에 대한 간증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나는 마음 속으로 모든 의심을 씻어 줄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시현이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에 올라탔고, 돌아 오면서 ‘하나님 아무런 변화가 없읍니다. 기도하기 전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읍니다.’라고 내 자신을 돌이켜 보며 고개를 휘저었습니다. 예상했던 시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예상했던 방법과는 다르게 왔읍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천사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간증이 아니라 확신으로 나타났습니다.”(인생의 보화 [데져렛 출판사, 1962년], 229~30페이지)

하나님께로 향한 영생의 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지식과 간증은 “규칙에 규칙을, 교훈에 교훈을”(교성 98 : 12)

빌려온 빛으로써만 살수없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신앙의 불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러한 빛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살수 있겠습니까?

더하는 것처럼 와야 합니다. 구세주께서는 “성경을 상고하라”고 말씀하셨으며, 경전이 가르치는 바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 : 39)고 하셨습니다.

경전에 대한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평소에 존경해 오던 한 형제가 어느날 물론경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경전에 관해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네, 매우 간단합니다. 일 페이지를 읽으시고 다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십시오. 이렇게 계속해 가시기 바랍니다.”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우리들 중 일 페이지부터 책을 읽으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영생의 지름길이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일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하고 완전한 지식을 얻을 때까지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게 될 원리에 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간이란 끊임 없이 경전을 현실적인 요구에 맞게 혹은 일시적인 편의에 따라 합리화하려고 노력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일의 계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러 계명을 상고하라. 이는 참되고...나 주가 이야기한 바는 참되도다.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거니와...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교성 1 : 37~38)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살아계신 예언자의 지시를 매일 접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한복음 7 : 16~17)

선교사가 처음으로 선교 지역에 발을 들여 놓으면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이리저리 뛰어드는 것으로써 기쁨을 찾고 선교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도 이와같은 방법으로 행복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나는 켈리포니아주의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천사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간증이 아니라 확신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한 계획으로 데저벳 공장에서 불구의 몸을 이끌고 일하는 사람들과 나란히 서서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젊은이는 “난 두번 다시 이 일을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트렐리아에서는 집사 정원회가 방학 동안 그들의 집회소를 건축하는 데 모두 나와서 건축 일을 돋기로 결정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전물을 짓는다고 하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콜트 레이크 시에 있는 어느 와드의 월계반 소녀들은 방학 동안 인근 병원을 찾아 가서 돋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600시간을 바쳤습니다. 방학이 끝날 무렵 가진 간증회에서 한 소녀는 그 봉사로 인하여 지상에 천국이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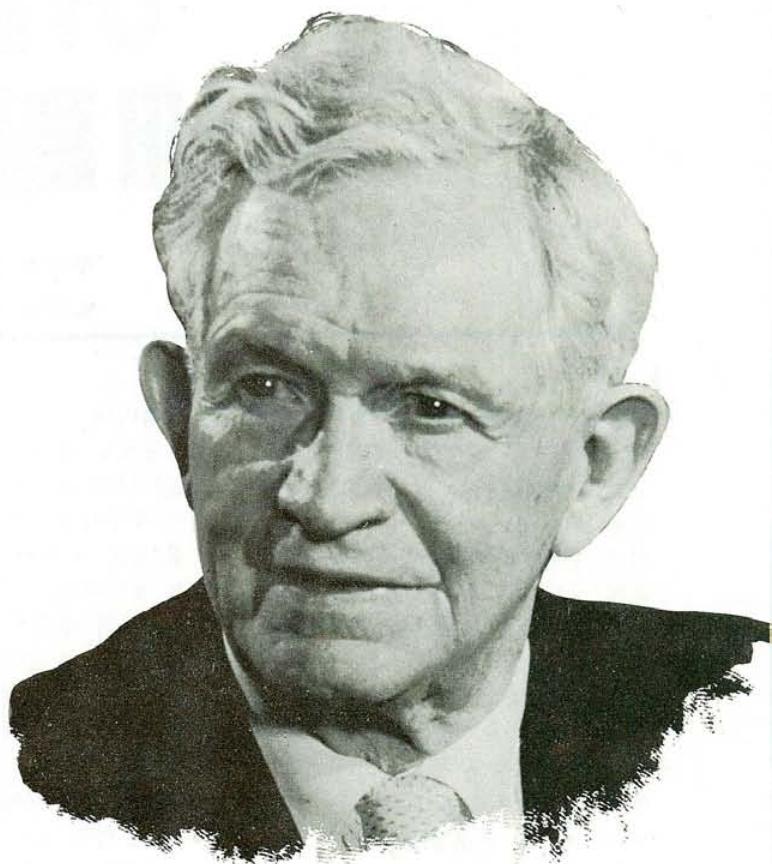
유타주 로간에 있는 어느 와드 청년 위원회는 미망인의 집을 수리해 주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어느 젊은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녀의 호소를 들었을 때 도와 주기로 결심했고, 나는 마침내 참된 행복의 열쇠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느 소녀는 “난 지금까지도 교사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야 1:27)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도처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성령의 은사를 받아 간증의 확신을 얻게 된 예는 무수히 많습니다. 단지 그의 뜻만을 배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이러한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록들이 혹 참된 것이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

“또한 성신의 권세로써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로마서 10:4~5)

이 성구는 다른 어떤 권고나 암시보다도 많은 사람에게 물론경의 간증을 얻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금식과 기도는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보다 원만한 대화를 갖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 온 예언자들이 사용한 좋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은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권고하



고 있습니다.

모든 말일성도는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며, 요셉 스미스는 복음을 회복한 예언자이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교성 1:30)라는 개인적인 확고한 간증을 지녀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께서 간증을 주시려고 확립하신 절차를 따른다면 이러한 간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름길은 없습니다. 알고자하는 욕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한 간증을 느낄 수 있게 해 줍니다. 끊임 없이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시며 그를 통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 주시는데, 이는 주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모두 자신의 굳건한 신앙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데, 이는 외부에서 빌려 온 빛으로는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

부르스 알 멕콩키 회장
칠십인 제일 정원회

나는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에 관해 아주 평범한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이러한 점에 오해나 잘못된 인식을 갖는 사람이 많으니, 사실상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섬겨야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상에 보내셨을 때 “유일하시고 살아 계시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섬겨야 할 이는 이분뿐이니라”(교성20:19)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써 가장 근본이 되는 계명을 재확인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눅 4:8) 또한 역사의 예언자들은 항상 다음과 같은 말씀을 되풀이 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꿈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끓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시 95:6~7)

영원하신 아버지의 영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옆에 돌아 가고 그와 같이 될 수 있나를 시험받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경배하고 구원을 추구하며 자신보다 더욱 위대한 권능이나 존재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본능적인 욕구를 심어주셨습니다. 경배라는 것은 그 자체가 내재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경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지 않으며, 경배의 대상이 누구이냐 하는 사실과 가장 높으신 분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다음과 같이 물었읍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에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약속하셨으니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영감역, 요한복음 4:22~26)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은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성령의 능력과 그가 정하신 방법으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합당한 방법으로 섬기면 구원을 얻읍니다. 영원한 진리를 근거를 두지 않은 거짓 신을 섬긴다면 그러한 확신을 얻지 못합니다.

참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며, 완전한 분으로 그의 형상대로 인류가 창조되었으며, 그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과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과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율법은 세상에서 그를 대표하는 사도나 예언자에게 계시를 통해 알려진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거짓 신을 섬기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금송아지라고 열렬히 믿는다던지, 모든 사물에 있을 수 있는 비물질적이며 창조되지 않는 힘이라고 믿는다던지, 그런 것이나 개념을 믿는 것은 천혀 구원의 능력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믿는다고 해도 그려한 사실은 조금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형상이나 능력이나 율법이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믿는다 해도 이러한 것이 그에게 불멸과 영생으로 이끄는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황소나 악어를 좋아했다면 이것들이 죽은 후에 남긴 어떤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에 따르면 지구는 틀림 없이 돌고 있으며, 태양은 빛나며 비는 의로운 자나 악한 자에게나 다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경배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며, 그는 죽은자를 일

으켜 세우고 산을 움직일 권능을 받게 되며, 천사의 방문을 받고 해의 왕국의 거리를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살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에게 우리는 어떻게 경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참된 경배의 열쇠는 1833년에 주님께서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 실려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계시를 통해 고대 사도의 가증을 새롭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기록은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태초에” 계셨으며, 그는 “세상의 구속주”이며 사랑의 빛과 생명이며,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육체 가운데 거하였으며”, “처음에는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으셨고” 마침내는 아버지의 충만하신 영광을 받으시었으며 “하늘과 땅에서 모든 권세를 받으시었으니” 아버지의 영광이 그와 함께 하시었다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함은 너희로 예배하는 자가 누구임을 알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와서 정한 시간에 아버지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합이니라.

“이는 만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의 충만하심을 받을 것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안에서 영광을 누릴 것임이니, 그러므로 내가 내회에게 이르거나와 너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리라.” (교성 93 : 7~20)

다른 말로 해서, 참되고 완전한 경배란 하나님 아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영광을 누린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나 설교나 노래보다도 낫습니다. 그것은 살면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대하신 분의 생애를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염두에 두고 이제 나는 그분께서 기뻐하실 경배의 방법들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그를 따르

며 그의 교리를 탐구하며 그의 뜻에 맞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길을 걷는 것이며, 그리스도처럼 칠헤를 받는 것이며, 그의 입을 통해 나온 왕국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며 그와 같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삶에 왕국의 것을 도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대로 사는 것이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오는 구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빛 가운데 거한 것처럼 빛 가운데 거하며, 그가 원하시는 바를 행하며, 그가 비슷한 경우를 당해서 하셨으리라고 생각되는 바대로 행하며, 그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주님의 영 가운데 거하며, 육신의 것을 초월하며, 욕망을 억제하며,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일조와 현금을 바치는 것이며, 현명한 청직이로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그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의 온갖 재능과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신전에서 결혼을 하며, 자녀를 낳아 복음을 가르치며 그들을 빛과 진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 단위를 완전하게 하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며 다른 아무 여자와도 결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역경을 당하고 있는 고아나 미망인을 방문하고, 세상적인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지 계획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이며, 병자를 축복하는 것이며, 선교사가 되고 가정 복음 교육을 실시하며 가정의 밥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복음을 공부하고 빛과 진리를 쌓으며, 하나님 왕국의 일을 깊이 생각하며, 그러한 것들을 생활의 일부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며,

성령의 권세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며, 감사의 친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일을 하며, 대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를 배불리 해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주며,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며, 늘어진 팔을 밭쳐 올려주며 약한 마음을 강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진리와 정의를 위해 대담하게 나서는 것이며, 정치, 문화, 교육 부문에 우리의 영향력을 선하게 행사하는 것이며 주님의 관심을 지상에 심을 수 있는 윤법과 원칙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즐거운 모습을 지니며, 용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간직하며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복음의 윤법을 그대로 준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로부터 너희는 나와같이 되리라는 축복된 확신을 받을 때까지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전전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의 진실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참되고 완전한 경배란 사실상 인간의 최선의 노력이요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속에 불의 펜을 들고 다음과 같은 주 예수의 명령을 쓸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눅4 : 8) 우리는 참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로써 이세상에서나 다음에 올 세상에서 화평을 얻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성도의 벗 구독신청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형

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훌륭한 대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며, 이제 나는 오늘 가르침과 위대한 교사라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메리온 더 햄크스 장로께서는 이미 고인이 된 그의 사촌인 프레임 형제가 인류에 끼친 깊은 영향력에 관한 말씀을 하셔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장례식에서 행해진 말씀 중에서 정말로 잊지 못할 것은 모든 소년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프레임 형제를 마음 속에 간직

음 반원들에게 소개되었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매우 친절하고 다정하게 나를 맞아 주었습니다. 그는 다른 소년에게 하셨듯이 내 손을 잡으시고 “형제님은 해롤드 던 형제님의 아드님이지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라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나와 가족에 관해 얼마 동안 이야기를 하셨으며 큰 관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풀, 우리 반원이 되는 조전 중의 하나는 매일같이 새로운 생각을 하는

는 새로운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가 또 다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잘듣도록 해. 항상 기억해야 할 교훈을 말해 줄테니.”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나는 평생토록 그 말씀을 잊지 못했습니다.

또 한 주가 지나갔으며 우리는 전파 비슷한 경험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새로운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깊게 들어 주십시오. ‘의무를 일깨워 주며

141차 반연차 대회에서 행한 연설

교사란 직분

풀 에이치 던 회장
칠십인 제일 정원회

하라는 말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그러한 문제를 곰곰히 생각하여 왔으며 내 생애에 있어서 그러한 인물을 알게 해 주신 하나님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미례의 꿈으로 가득차 있는 우리 십대 소년 여섯 명의 제사 고문으로 지명된 사람은 78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비 스튜워트였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오늘 이 자리에 훌륭한 태버나를 학창단의 단장으로 계십니다.

나는 여러분께서 16세의 소년을 맡은 78세의 노인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셨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 중 몇 명은 우리 감독의 지혜를 의심했는데, 이는 우리들은 감독이 문자 그대로 모체를 다시 불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허리 우드 와드의 다 닳은 다락방에서 처

것이랍니다. 오늘 형제님께서는 새로운 생각을 하셨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몇년 동안 새로운 생각을 해보지 못하였으며 내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자 그는 “좋습니다. 이제 한가지를 가르쳐 드리지요. 잘 들어 주세요. ‘주의는 기억의 어머니다’ 그럼 한번 되풀이해 주시겠습니까?”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의워 보였습니다. 그는 내가 그의 반에 들어 가도록 허용했습니다.

매우 훌륭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는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난 형제에게 집에 가기 전에 새로운 생각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걸 잊었군.” 나는 그 순간 집에는 다 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

죄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깨우쳐 주는 뜻을 지닌 이상하고 낡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으로 그 목소리는 전혀 말을 하거나 소리를 내지 않지만 마음 속을 통해 들려 옵니다.”이 말씀 역시 나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다시 교사님은 또 다른 것을 외울 때까지는 안된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할 말씀이 없다고 하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 보세요. ‘빈 깡통이 소리를 더 크게 낸다’는 말이 있지요. 우리는 속이 가득차서 경박하지 않고 신중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후 나는 그 말씀에 대해 많이 생각하였습니다. 또 다음 주에 그는 또 다른 훌륭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젊은이의 훌륭한 모범은 온유한 빛을
발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을 향
상시키고 그 다음 이웃이나 친구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나는 이 말씀
역시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하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년 후에 나는 군에 입대하였고
오키나와에서 군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스튜워트 부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는 나의 친
절했던 친구요 고문이었던 스튜워트
형제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슬픈 소
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매님께서는
스튜워트 형제가 나에게 쓴 미완성
편지를 통봉했는데 그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
는 풀 형제, 이제 멀리 떨어진 이국
땅에 있는 형제를 생각하고, 어렵거나
용기를 잃을 때 형제님의 마음을 굳
게 갖도록 몇 가지의 말씀을 드리겠
읍니다.” 편지에는 25가지의 새로운 교
훈이 적혀 있었고 나는 결코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염려해 주시는 사람들과 프
레임 가족과 스튜워트 가족들에게 하나님
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후에도 내 생애에 그토록 훌륭한 영향을
미친 다섯 사람을 손꼽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헭크스 장로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모든 소
년들에게 프레임 형제나 스튜워트 형
제가 있어야 합니다.

교사란 무엇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교사란 예언자입니다. 그는 내일의 기초를 놓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예술가입니다. 그는 꾸밈 없는
인격의 값진 흙으로 작품을 만들 어냅니다.

교사는 친구입니다. 그의 마음은 반
원의 신앙과 혈신에 반응을 보입니다.

교사는 훌륭한 시민입니다. 그는
사회적 발전을 위해 뽑혔으며 그러한
일을 하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교사는 설명자입니다. 그의 성숙하

고 폭넓은 삶을 통하여 그는 젊은이
들을 인도합니다.

교사는 전설자입니다. 그는 보다
훌륭하고 높은 차원으로 문명의 가치
를 이끌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교사는 교양을 한 몸에 지닌 사람입니다.
그는 보다 합당한 방법으로,
전전한 태도로, 보다 높은 예지로 반
원을 인도합니다.

교사는 계획자입니다. 그는 그 앞
에 있는 젊은이들이 진리의 빛을 안고
보다 강력하게 자랄 수 있는 위대한
체제의 일부로 그들의 생활을 살펴야
합니다.

교사는 개척자입니다. 그는 언제나
불가능한 것을 해명하고 시도하고 결
국 이루어냅니다.

교사는 개혁가입니다. 그는 삶을
약하게 하고 당치는 불리한 조건들을
개선하도록 노력합니다.

교사는 신앙인입니다. 그는 하나님
과 인류의 향상을 위한 변함 없는 믿
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임스 트루
스로우 아담스¹는 다음과 같이 말했읍
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분명한 교
육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생계를 유
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다른 한 가
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줍
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
르치는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엘버트 후바드²는 “여러분은 누구에
게나 어떤 것을 가르칠 수는 없읍니다.
여러분은 다만 그로 하여금 자신의
의 존재를 찾아내도록 도울 수 있을
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세주의 특질입니다.
그는 우리가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거룩한 원리를 가르쳐 주며 그렇게 하
여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
니다. 구세주는 교사로서 동료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잠시 동안 누가복음 15장을 살펴보

1. 아담스, 제임스 트루스로우(1878~1949) 미국 역사가.

2. 후바드, 엘버트(1856~1915) 미국작가, 편집인.

겠는데, 여기에서는 이 위대한 교사
께서 우리 모두가 당면한 인생의 문제
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
습니다. 누가는 세리, 죄인들, 바리
세인, 사두개인들의 무리가 예수께
다가왔으며 그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
은 비유를 말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일백 마
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그런 다음 그는 양을 찾는 순간의
기쁨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조금도 쉴 사이 없이 다음과 같
은 두 번째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셨읍
니다.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
니하겠느냐” 그녀 역시 이를 찾아 이
웃과 기뻐하게 되리라고 예수께서 말
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방탕한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읍
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
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
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온 분
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실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며칠
이 못되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눅 15:11~32참조)

교사로서 나는 왜 구세주께서 이처
럼 잃어진 것들에 관한 세 가지의 비
유를 들었는지 궁금하게 생각했었읍
니다. 그려다가 어느 날 그러한 의도
를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
람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길을 잃는
데, 이제 우리는 누가 복음을 통해서
구세주께서 이러한 것들을 되찾도록
권고하는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봅니다.
만일 구세주께서 오늘날 이러한 비유
를 다시 가르치게 된다면 그는 양(혹
은 잃은 사람)은 본래가 죄인이 아니
며, 양과 같이 사람도 무엇이 중요한
가 하는 점에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
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그들은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구세주께서는 이 반에 계신 교사나 고문에게 “만일 여러분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바란다면 그들에게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가족, 봉사, 형제애란 모두 오늘날 이러한 양을 위해 마련된 목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가정인 것입니다.

다음에 그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 대회에서도 도 않게 된 값진 동전인 젊은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훌륭한 비유에서 나오는 여성처럼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무한한 가치가 있는 보화를 우리의 손가락에서 흘려 봄시다. 확실히 우리는 잃은 양에 대한 것처럼 이러한 잃은 물건을 찾으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잃은 동전을 찾기 위해 사용해야 할 과정은 사랑, 관심, 주의라고 말할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구세주께서는 스스로 원해서 길을 잃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스스로 들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눅15: 17)

스스로 원했기 때문에 길을 잃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팔을 벌리고 교회의 문을 열며 그들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읍니다. 정말로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와 고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스스로 들이킨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는 회개하고 용서를 간구하고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에 나오는 탕자와도 같읍니다.

이제 이러한 것이 적극적인 복음이라는 생각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

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위대한 전설의 힘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항상 미소를 지으며 살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소홀히 다룹니다. 복잡한 생활을 하는 현대인은 복음과 미소가 가져다 주는 침된 우정과 온정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나는 최근에 어느 친구와 함께 거리를 걸은 적이 있는데 그는 화가 잔뜩나 있는 사람을 보고 “마치 식초라도 한 그릇 마신 모양이지”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나는 연설을 듣고 있던 어머니와 어린 딸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는데, 이 어린 아이는 어머니에게 “필씀하시는 분은 행복하지가 않은가봐요”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모양이구나”하며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딸은 다시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왜 얼굴 표정과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나 그러한 것들을 생활에 적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의 표정을 보신다면 크게 실망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느끼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의미와 목적은 그것이 기쁨과 행복, 평화,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데 있읍니다.

우리는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 세상은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말씀이 담긴 표준 경전은 우리가 당면하게 될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모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합시다.

신약성서에는 사람들을 돋는 법을 가르쳐 주는 마흔 세 가지의 또 다른 비유가 있읍니다. 그러한 경전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은 영생의 길을 찾을 수 있읍니다.

나는 복음이 진실하며 그것은 실제

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나는 창고에서 금을 꺼내 거지에게 주었읍니다. 그는 빛나는 금을 다 써버리고 다시 나를 찾아 왔고 또 찾아왔으며 전과 같이 아직도 배가 고프고 추웠읍니다.

나는 생각을 주었읍니다. 내가 준 그 생각으로 그는 자신이 성숙하고 고귀하고 거룩하고 배불리 먹고 웃을 잘 입고 여러 가지 축복으로 부러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이제 그는 더이상 바랄게 없읍니다.

(작자미상인 “침된 선물”에서 발췌)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이러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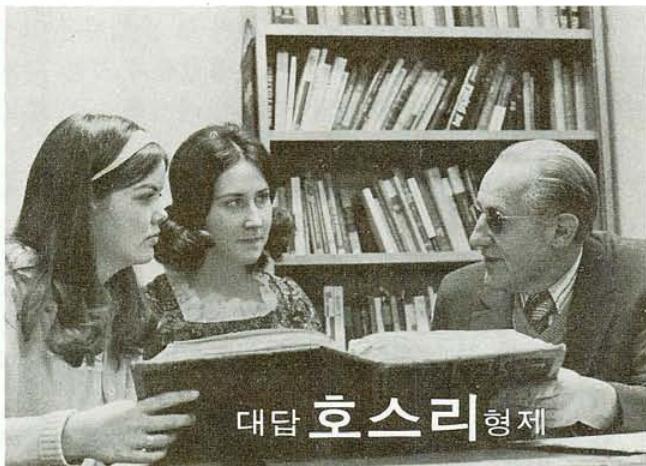


질문과 대답

이곳에 소개되는 대답은 참고로 쓰여지는 것이며 교회의 교리가 아님을 밝혀둔다.

1

“점성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합니까?”



대답 호스리 형제

본적으로 우리는 점성술 역시 점을 치거나 사주를 보는 것과 같다고 보아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미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진정한 과학으로서의 점성술과 거짓된 과학으로서의 점성술을 구별하는 문제가 계속 개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것은 과학이 미신으로부터 성장해 왔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더욱 복잡해집니다. 즉 별이 인간사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을 믿는 것은 결국 고대의 점성술에 대한 지식을 개발한 사람들에게 천체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할 동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중세기까지 점성술이나 천문학은 흔히 같은 것으로 취급되었으며, 연금술, 마술, 기타 비술파도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6세기 코페르니쿠스¹ 이후 두 가지 이론으로 갈라졌는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현대과학은 천문학의 영향을 무시해 왔습니다. 최근에 이르러 과학자나 신학자들도 모두 놀랄만한 오늘날의 일반적인 부조리와 일치하는 거짓된 이론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점성가들은 인간이 출생할 때의 12궁도를 사용하여 그 사람의 천계도를 그리고 운수를 점칩니다. 이것을 점성술이라고 말하는데 이로써 인간의 길흉, 재앙, 사고, 질병 등을 점치게 됩니다.

인간 성품의 기본 단위로 자유의지를 인정하시고 그러한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운명이 천체의 움직임이나 관계로써 지배되도록 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나 물리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반응을 보이지만 인간의 성품이나 개성과 천체의 현상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고대에 번창했던 몇몇 나라들은 이러한 신화들을 수세기 동안 믿어 왔고 사실보다도 훨씬 이를 높이 평가하고 위엄성까지 부여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특별한 별의 모습을 보고 페르샤로부터 팔레스타인에 찾아온 조르아스타² 교의 동방 박사들은 이 점성술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전은 그러한 것을 믿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라는 사실만을 밝혀줄 뿐입니다. 사실 유대의 기독교 전통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믿음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다음과 같이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 주님의 뜻을 따를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의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신명기 18:10~12)

이와 같은 말씀으로 예언자 이사야는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은 “불

1. 코페루니쿠스, 니콜라우스(1473~1543) 폴란드 천문학.

2. 조르아스타교 BC6세기경 페르샤의 예언자 조르아스타가 세운 종교.

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47: 13~14)고 말함으로써 그 당시의 그러한 관습을 꾸짖었습니다.

소위 점성가나 복술가나 길흉을 말하는 자의 적중율은 거의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은 그들이 평소에 믿었던 주님의 영의 힘에 의지하여 보다 훌륭한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 1:20)

다니엘서에서만 언급된 세 번 이외에도 점성술이 믿지 못할 것임을 알려 주는 성구가 많이 있다는 것은 흥미있는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물론 이성으로 우리의 자세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미신이나 신화 등에 혼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에이 버트 호스티
교사 자질 향상 책임자
프로보 스테이크 제5 와드
브리감 영 대학 종교 및 철학 교수.

2

“사람은 한 번정도 반항이나 거역의 길에 빠진 다음 회개하는 경우와 전혀 그런 경험을 갖지 않는 경우와 어느 편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경전에 나오는 탕아와도 같이 나쁜 길로 빠져서 방탕생활을 하고 반항하다가 다시 회개하고 뉘우쳐서 복음 가운데로 돌아 온 사람의 예를 보았을 것입니다

다. 그러한 경험이 있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와 용서입니다.”

나는 다시 자신의 자세로 돌아 오거나 악한 생활을 버리고 정직한 삶을 택한 사람을 보기를 즐겨워하며, 참된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에게 돌아 온 사람에게 완전한 용서가 따른다고 믿지만 그래도 나는 악한 길로 빠지고 난 후에 다시 헤어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의롭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나는 자신이 죄를 지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참된 회개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쁜 추억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억이란 삶이 만들어지는 자료의 일부인 것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마음 속에 있는 죄이거나 회개한 죄이거나간에 나의 약점이나 죄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 사람이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거슬리면 그는 인생과 우주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회개는 조화를 되찾게 해 주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모두 보상해 주지는 못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취중 운전을 해서 생명을 잃게 한 운전사는 그 생명을 되찾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실하지 못한 남편은 아내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주게 마련입니다.

3. 인생이란 값진 은사입니다. 인생을 천박하고 악한 목적을 추구하는 데 써 버린다면 가치있는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재능은 개발되지 못하여 마음이 수양을 쌓지 못하고 봉사의 정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인생이 우리의 삶을 방탕하게 사용하기에는 너무 짧고 고귀합니다.

4. 가끔 회개로 새 출발을 한 삶이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회개한 자신을 영웅시 하기 위하여 자신의 약점이나 욕망을 합리화하려 합니다. 이런 생각의 위험성은 그러한 사람이 결코 자신의 힘을 알지 못하며 다른 생활 양식을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는 전전하지 못한 삶의 궤적 속에 한번 빠져 버리면 회개할 의사를 잊게 됩니다.

5.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생각은 사실입니다. 경전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 가운데 죄를 짓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구세주입니다. 그는 세상을 사는 동안 힘이나 순결로 고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들은 쉽게 우리의 약점과 죄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지만 실수를 범하고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모두 합쳐진다면 결국 다 똑같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는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회개와 용서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맛볼 이유가 있습니다.

로웰 베니온
유다 대학 부학생감



“교회의 복장 표준은 누가 정합니까?”



시대의 조류에도 따르며 동시에 교회 회원으로서 기대되는 요구에도 순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처에 있는 젊은이들은 복장의 표준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복장 표준을 누가 결정하는가라는 질문이 자주 생기게 됩니다. 교회의 보조 조직입니까 위원회입니까 아니면 교수단입니까?라는 질문을 흔히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상의 어느 것도 그려한 것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의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표준이나 제약이 있게 마련인데, 교회가 세운 학교의 재단에서는 학교에 등록한 학생들을 위해 규칙과 표준을 설정합니다. 그러한 표준이나 제약은 특정한 구룹의 지도자가 관계되는 대다수의 입장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이러한 규정은 다른 지역에 사는 교회 회원들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교회 전반에 적용되는 규정이나 표준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 교회 회원들에게 해당되는 표준은 대관장이나 총관리역원들이 결정하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조직될 때부터 회원들은 예언자나 지도자들로부터 정숙하며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딤전4:12)한다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1869년 초에 브리감 영은 가족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으고 “질서, 겹약, 근면, 성숙의 습관을 증진”하기 위한 협회를 조직하였는데 특히 복장, 음식과 말씨 등에서 사치스러움을 퇴치하자는 내용이 이 협회의 주요한 설립취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지도자들도 정신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복장과 행동의 표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회원의 복장 표준을 구체적으로 규정지워 주는 것이 교회 지도자의 뜻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전세계적이며 복장의 형태는 문화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정할 수 없고, 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 갈 수 있는 지침으로 주님께서 확립하신 표준과 원리를 나타내 보여 줍니다.

이러한 원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마음과 행동의 순결이 있습니다. 겹손함이 순결의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이러한 복장의 문제는 합당하게 훌륭한 취향에 맞추어 입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복장의 표준은 젊은이와 부모와 교회의 지도자에게 지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 주고 있습니다. 다른 개념에 있어서와 같이 이러한 겹손의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해치는 구체적인 예를 열거하시지 않고 다만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도록 돋고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돋는 것이 교회 지도자의 주요한 책임입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은 그의 저서인 ‘젊은이와 교회’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당면하게 될 여러 가지의 경우가 다 그렇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하는 문제는 배움과 경험에서 오는 이해에 더해진 여러분의 양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올바른 원칙을 가르칠 뿐이며 여러분은 스스로를 제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젊은이와 교회, 데저렛 출판사, 1955년 155페이지)

교회의 표준 복장은 누가 정합니까?라는 질문을 살펴 봅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리와 지침을 주십니다. 우

리 교회 지도자는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고 지킬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신앙과 이해에 기초를 둔 선택을 하며 교회의 회원으로서 개인적인 표준을 설정합니다.

칼 에이치 캐논
교회협의회 집행 위원회 서기
청년 상향회 본부 임원.

4

“축복사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대답 링 커 형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계획, 우리가 행해야 할 임무를 믿으며, 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교회의 율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말일성도라고 불리움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신가에 관해 축복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는 또한 주님께서 그의 성실한 태도에 따라서 무엇을 주실 것인가 하는 점 즉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하는 점을 영감을 통해 알게 됩니다.

실제의 경험이 가장 좋은 설명이 될 것입니다. 전도가 유망한 어느 소녀가 주님께서 자기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상향회의 활동적인 회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축복사를 받아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6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왔습니다. 축복이 먼저 불어로 번역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녀는 잡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초조해져서 편지로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어 왔습니다. 나는 편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어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인내가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그녀는 번역문을 받은

후에 다시 자기는 축복에서 특별한 메시지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써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다시 자세히 읽어 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녀가 그 내용을 따른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2년 후에 그녀는 엔디우먼트를 받기 위해 신전으로 여행을 할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그녀는 스코틀랜드에서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떠나기 전에 나를 만나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몇 사람을 침례반도록 이끌었는데 그녀의 부모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으며 어머니께서도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언니가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축복에는 특별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녀의 인내는 보상을 받았습니까?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길고 성공적인 인생의 출발이었습니다. 과연 인간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고 이것을 받을 준비를 해서는 안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나다나엘(요 1: 45~47)의 예에서도 볼 수 있으며, 우리는 주어진 축복을 성취하고 그것을 손상시키는 모든 것을 멀리하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선택된 백성이라고 불리워집니다.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축복사의 축복이 속해 있는 신권의 권능을 통해 우리는 막중한 책임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신전을 지으며 선교 사업을 하고 구세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가장의 축복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한을 읽을 것을 권고하며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는 인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리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준 약속을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으신 다음에는 마태복음 22: 1~14에 있는 왕자의 결혼에 관한 비유를 잘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전을 읽고 이해를 쌓게 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외에도 감독이나 지부장과 접견을 해야 합니다. 그는 필요한 사항을 알려 줌은 물론 여러분이 그려한 축복을 받도록 정신적으로 도와 줄 것입니다.■

칼 링커
축복사, 스위스 스테이크.

존 테일러 용감한 사람

레온 알 하트손 1972년 10월호



말

은 사람들은 이미 카테지 감옥에서 요셉과 하이람 스미스의 순교 당시 어떻게 적탄이 존 테일러의 시계를 뚫고 갔으며 기적적으로 그의 목숨을 구했는가 하는 사실이라던지 어떻게 하이람이 존 테일러에게 “슬픔에 잠긴 나그네”라는 찬송가를 부르게 하여 그를 격려하였는가에 관해서 읽거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한 신문인으로서 그의 빛나는 역할이나 그가 한 모든 일에서 나타난 대담하고 솔직한 신앙심 등 그의 인품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의 독특한 생활 태도는 그가 교회에 들어 온 초기에 주어진 “신앙의 수호자” 혹은 “자유의 쟁취자”라는 별명에서 잘 설명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적개심을 품은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들로 하여금 공공연히 자신을 해하도록 한 그 사람은 어떤 용기를 지녔겠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훌륭히 이해하여 말 한 마디 하지도 않고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와도 같이 그러한 특성도 주님과 복음을 향한 우리의 태도 가운데서 어린 시절부터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테일러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소년 시절을 회고

해 봅니다. 나는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여러 차례 들이나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숲을 찾아 갔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가끔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내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은밀한 장소에서 주님께 간구하여 보십시오.”

그는 15세의 나이에 영국 밀른돌프에서 감리교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그는 곧 지역의 목사로 지명되었습니다.

부모들이 카나다로 이주한지 2년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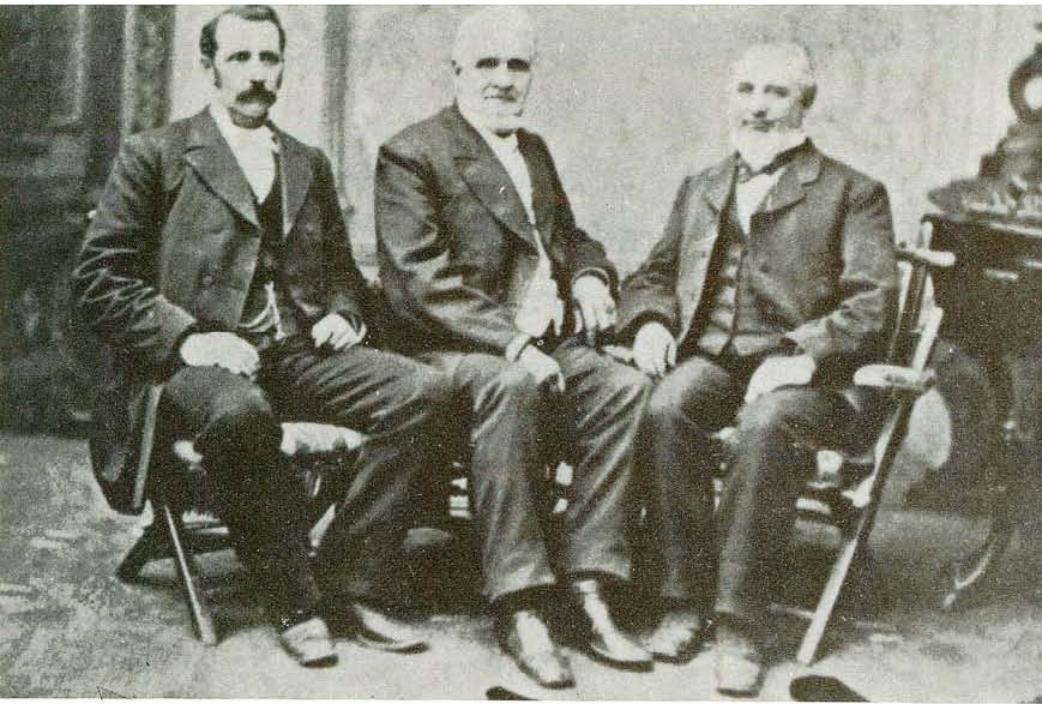
존 테일러가 갖고있던 이 시계는 요셉과 하이람이 순교하던 카테지 감옥에서 적탄으로부터 그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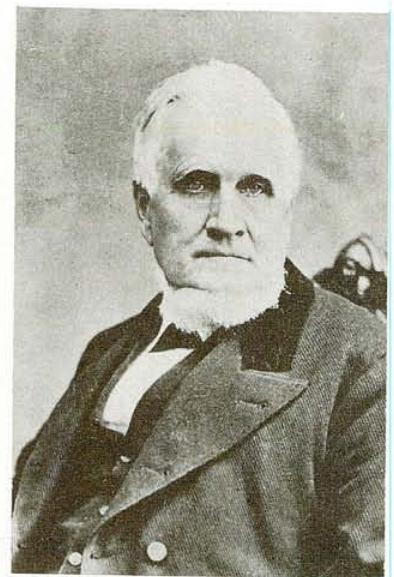
에 그는 “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고 싶다”는 말을 했으며, 그는 카나다의 토론토에 가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통을 만들어서 파는 일에 종사했습니다.

좀 특이한 상황에서 그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은 토론토에서였습니다. 팔리 피프랫트가 계시로 그 도시에 보내졌었습니다. (히버 시이 킁볼 장로 역시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 ...이 선교부에서 발전하게 된 충만한 복음이 영국으로 전파되리라.”) 그는 카나다의 해밀턴에 있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토론토에 있는 존 테일러에 관한 소개장을 받았고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의 태도는 정중했으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프랫트 장로는 그의 메시지를 전한 다음 떠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가 존 테일러와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이웃의 한 자매가 찾아와서 프랫트 장로에게 복음을 전해 줄 것을 부탁했고 복음을 가르칠 장소와 숙소를 제공하겠노라고 제의를 해 왔습니다. 그 사람은 테일러가 조직한 연구 단체의 일원이었습니다. 며칠 내에 존 테일러는 프랫트 장로가 복음을 가르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교회의 교리나 신조를 연구하고 그러한 것



1880년 대관장단의 모습. 존 테일러와 그의 보좌인 조셉 애프 스미스, 조지 큐 캐논



초기의 모습

테일러 대관장의 초상화

들이 거짓되다는 사실을 증거하였읍니다. 이제 우리는 몰몬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아야 할 것 같읍니다. 여기에 계신 프랫트씨는 우리의 의견과 일치하는 여러 가지의 교리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읍니다……우리는 하나님 이 이 지상에 참된 교회를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있도록 사자를 보내 달라고 간구하였읍니다……나는 이분이 전하신 교리를 연구해 보고 싶으며 내

가 이러한 연구를 하는데 나의 친구들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 혼자 연구를 차수하겠읍니다. 만일 내가 이 교리가 진실하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는 받아 들이겠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되다면 그러한 사실을 세상에 밝히겠읍니다.”

그는 프랫트 장로와 계속 함께 했으

며 그후 여덟 차례나 설교문을 작성 했읍니다. 그때 그는 은밀히 그러한 내용들을 경전의 말씀과 대조해 보았읍니다. “나는 약 3주간 그러한 것을 일파로 삼았으며 프랫트 장로가 가는 곳마다 쫓아 갔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그후 곧 교회에 들어 오게 되었읍니다.

많은 친구와 이웃을 토론토에서 개종시키고 성도들과 함께 커틀랜드로 이주한 후 그는 30회 생일을 맞은지 며칠 만에 사도로 성임되었읍니다. 6년 후에 다시 그는 나부에 있는 교회 신문인 타임즈 앤드 시즌즈의 편집인으로 지명을 받았읍니다. 그후 몇년 동안 그는 많은 신문과 소책자를 편집했고,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뛰어난 논리로써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는 놀랄만한 웅변가로서 명성을 얻었읍니다.

브리건 영 대관장은 테일러 장로의 재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존 테일러 대관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이지력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그는 강력한 사람이며, 막강한 능력의 소유자이며 훌륭한 편집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나는 그가 지금까지 세상에 살았던 가장 위대한 편집인 중의 한 사람이라

존 테일러 대관장의 약력

(1808~1887)

11월1일	나이	
1808년	-	영국 밀른돌프에서 탄생
1822년	14	통제조업자로 일함
1824년	16	감리교에 들어감
1832년	24	카나다로 이민감
1836년	28	침례받음. 카나다에서 교회일을 맡음
1838년	30	사도로 성임됨
1839~41	31~33	영국에서 최초의 선교사업을 시작함
1842~46년	34~38	타임즈엔드 시즌즈의 편집인
1846~47년	38~39	영국에서 두번째로 선교사업을 함
1849~52년	41~44	블란서와 독일에서 선교사업을 함
1855~57년	47~49	이스탄 스테이트 선교부를 관장함
1857~76	49~68	유타 지역 의회 의원
1877년	69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됨
1880년	72	대관장이 됨
7월25일		
1887년	78	작고함

는 말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동안 테일러 장로는 영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종사하게 되었읍니다. 그는 영국에 복음의 문을 열었읍니다. 그는 아일랜드와 리버풀에서 선교 사업을 하였읍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블란서에도 복음을 전했고 요셉이 순교당한 후 성도들의 서부 이주를 도왔읍니다. 서부에서 그는 교회의 일과 일반 성도의 일을 처리하는 데 뛰어난 솜씨를 보였읍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과연 어떠한 인물이겠습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서 그의 면모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테일러 장로는 오하이오주 클럽버스 근교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러 가고 집에 없었습니다. 연설 시간이 거의 다 될 무렵 일부 성도들은 이 시골 사람 대부분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한 그가 적들로부터 테로를 당할 것을 염려하여 그곳에 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 순간 테일러 장로는 잠시 생각하고는 가겠다고 말하고, 만일 그의 친구들이 동행하기를 두려워한다면 혼자라도 가겠다고 했읍니다.

그는 그곳에 도착하자 자기는 군주의 율법하에 있던 카나다에서 최근에 미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말하고 다음

과 같이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인간에게 부여된 최대의 축복인 생각하고, 말하고, 쓸 수 있고, 누가 그들을 다스릴 수 있나를 이야기할 수 있고 양심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권리(권리를)를 쟁취한 선조들의 후손들이 여러분 앞에 서 있읍니다. ……나는 오늘 전제자의 명령에 굴하지 않고 그들의 속박을 벗어나기 위하여 생명, 재산, 거룩한 명예를 바친 고귀한 선조들의 후손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

“그들은 고귀하게 피를 흘렸고, 고귀하게 평화를 쟁취하였읍니다. 자유의 가치는 전국에 충만해 있으며 힘차게 나부끼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유를 실은 배는 대양을 건너 다른 나라를 방문하고, 배가 가는 곳마다 깃발이 훈풍에 나부끼며, 자유를 짓밟힌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다 주었읍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의 나라에서 자유를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 가운데서 자유를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유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체제에서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치가들이 이미 그것을 선언했읍니다. 법률로서 공포되었으며, 어린 아이도 이것을 말하며, 학교에서는 배우고 있읍니-

다. 군주국에서 최근에 오게 된 내가 이러한 새로운 환경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느낌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나는 점점 여러분께서 나의 종교적인 견해에 반대하셔서 테로를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것이 선조들로부터 물려 받은 유산이란 말입니까? 이러한 것이 고귀한 피를 흘리고 쟁취한 자유의 축복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지금 재물을 얻었고, 우리는 기꺼이 자유를 위한 희생을 감수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조끼의 단추를 열고 다시 청중을 향해 말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다 되었읍니다. 마음대로 와서 타르칠을 하고 탑털을 내 몸에 끊으십시오. 후세의 애국자들은 여러분의 타락한 행위를 심판할 것입니다. “자,어서 오십시오! 다 준비가 되었읍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무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읍니다. 아무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읍니다. 그는 6척의 거구로 위엄을 보이며 조용히 용감하게 서 있었읍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읍니다.

잠시 동안 서 있다가 그는 세 시간 동안이나 복음을 설교했읍니다. 그가 이야기를 끝냈을 때 그 지역의 지도자가 앞으로 다가와서 지역민의 불의한 행위를 사과하는 말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의 용감한 신앙은 또 다른 일에서도 살펴 볼 수 있읍니다. 그는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읍니다. 파 웨스트로부터의 어려운 여행을 마친 후 테일러 장로는 뉴욕에 도착했는데 그의 주머니에는 1센트밖에 남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그는 궁핍한 사정을 말할 사람이 아니었으며 돈이 있느냐는 물음에 있다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팔리 피이 프랫 장로(그를 침례준 사람)가 그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물었읍니다. “테일러 형제는 돈이 많다면서요?”

“네 그렇읍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지금 ‘경고의

말씀'이라는 책과 '밀레니얼 포우임즈'라는 책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이 삼백 떨리한 빌려 주신다면 매우 고맙겠습니다."라고 프랫 장로가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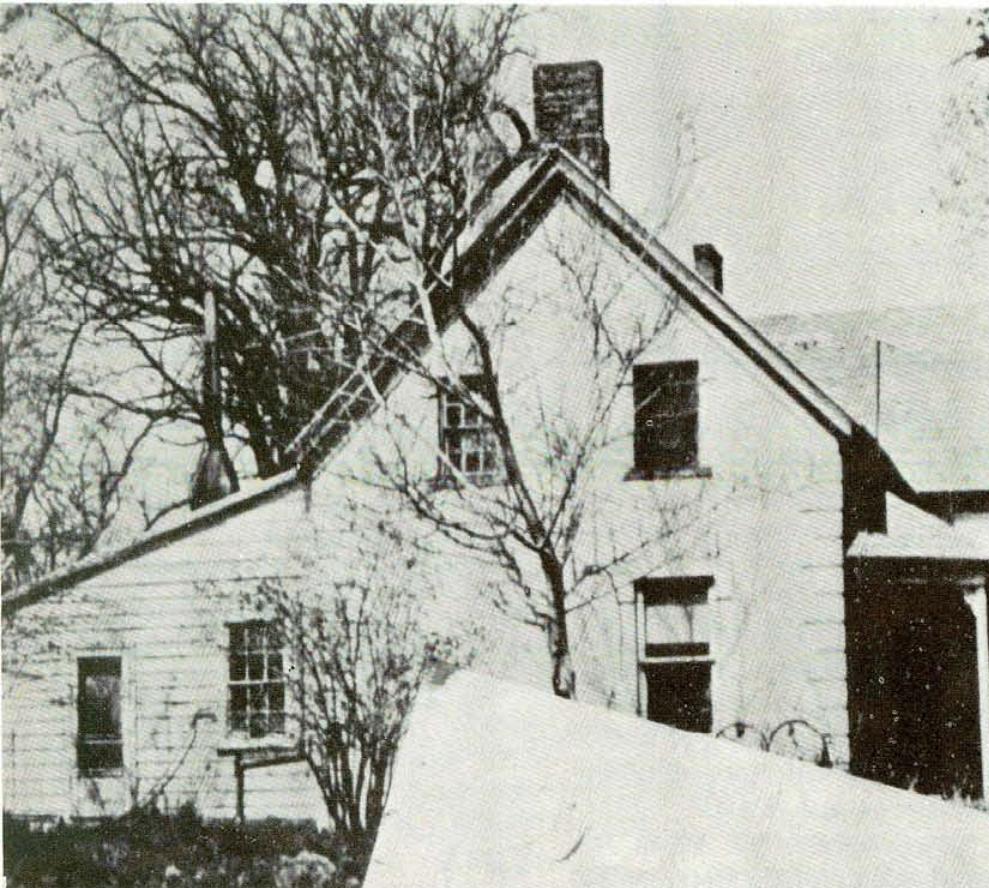
"글쎄요, 팔리 형제, 도움이 되어 줄 수만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하면서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마지막 남은 1페니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크게 웃었으며 프랫 장로는 "그렇지만 나는 형제님이 가지신 충분한 돈을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으며 "나도 다 준 느낌이 들어 기쁩니다"하며 테일러 장로도 대답했습니다. "나는 훌륭한 웃도 입고 있으며, 형제님이 주신 음식과 훌륭한 숙소에 만족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더해서 내가 1페니를 갖

고 있다는 것은 빛을 지지 않은 나로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날 저녁에 평의회가 열렸으며 몇몇 형제가 영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프랫 장로는 존 테일러 형제의 여비를 지원해 주자고 제의했으며, 윌포드 우드럽 형제가 그와 함께 가기로 되었습니다. 모임이 끝났을 때 테일러 장로는 도움을 받기를 거절했으며 만일 도움을 주실 분이 계시다면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책을 출판하는데 돈이 필요한 팔리 프랫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훌륭한 신앙심을 지닌 윌포드 우드럽은 테일러 장로의 처지를 떡하게 생각했었습니다. 테일러 장로는 "윌포드 형제님 제가 가는 것이 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비용을 어디서 구하지요?"라고 우드럽 장로가 물었습니다. "아 그것은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배에 타서 내 자리나 하나 마련하십시오. 돈 문제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우드럽 장로는 이야기를 들은대로 했는데, 이때 주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현금해서 그뿐만 아니라 다른 장로의 여비까지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글과 말과 행동에서 볼 수 있었던 그의 용기와 대담성은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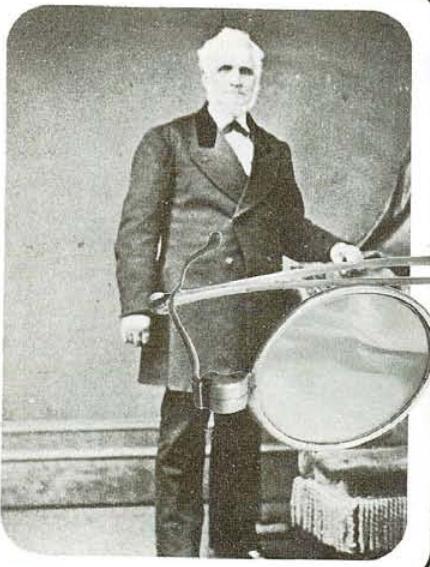


테일러 대관장은 유타주 케이스빌에 있는 이 집에서 1887년 7월 25일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까지 그는 영어의 몸이었다.

John Saydor

테일러 대관장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죽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만 한다면 어떤 힘도 우리를 압도하치는 못할 것입니다"라는 영감에 진 교훈을 남기고 서명하였다.

대관장 시절에 썩은 테일러 대관장의 위용.



대관장의 안경

그러나 아직까지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점은 사람들에 대한 그의 이해심과 사랑입니다. 성도들이 유타주로 이주하고 그가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있을 때 두명의 나이가 들고 성실한 형제가 심하게 다투고 그를 찾아 왔습니다. 그들은 테일러 장로가 내리는 결정이라면 무엇이건 따르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방문했고 그들이 심히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형제님 제가 말씀을 듣기 전에 시온의 노래를 불러 드리겠습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났던 테일러 장로는 그들에게 친송가를 불러 주었습니다. 노래를 마치고 나서 그는 시온의 노래는 한곡을 부르면 반드시 또 하나님을 더 부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는 두 번째의 친송가를 듣기로 했습니다. 두번째 노래가 끝나자 테일러 장로는 또 재미있는 노

래가 있다고 말하고 그들의 허락을 받아 세 번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 형제님들, 저는 형제님들을 피곤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신다면 한 곡을 더 부르겠습니다. 이 노래가 끝나면 형제님들의 말씀을 꼭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가 네 번째의 노래를 다 마친 무렵 이 두 형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하고 테일로 장로에게 찾아 온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의 노래가 두 사람의 마음을 화해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한때 어느 지부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번 일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두 모였을 때 나는 기도로 모임을 개최했고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으며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나는 불평을 토로하려

고 모였던 사람들 마음속에 선한 느낌이 드는 것을 느꼈으며,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말했읍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만을 토로 할 것은 없다고 말했읍니다. 그들이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들로부터 사라졌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 속에서 그러한 느낌을 몰아내 주었으며,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읍니다.”

바로 그러한 역할을 맡아 한 분이 존 테일러였읍니다. 1887년 브리감 영 대관장이 세상을 떠났을 때 존 테일러 형제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1887년까지 교회를 이끌었읍니다.

비록 그는 자유의 쟁취자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이상하게도 복수 결혼에 관한 미국 정부의 지나친 박해 때문에 많은 기간을 감옥에서 보냈읍니다. 그 결과 테일러 대관장 당시 많은 성도들이 멕시코와 카나다로 이주해 갔습니다.

이때의 박해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나로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 지길 바랄 뿐입니다. 나는 시련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고통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줄 것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지진이 일어나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며, 암흑의 힘이 세상을 덮고, 악령이 팽배하여 성도들을 지배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내생애가 시험을 받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감수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묵묵히 이겨내겠습니다. 만일 그것이 평화를 위한 것이라면 평화롭게 대하겠고 전쟁을 원하는 것이라면 그대로 대항해줄 것입니다.”

이토록 어려운 때에 그토록 용감한 정신이 없었다면 많은 성도들이 이 시온의 대열에서 이탈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용기란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진리의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생활과 여러분이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사람의 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하겠읍니다. ■

■ 선교부장단 메시지 ■



하나님 말씀에 순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12사도들을 둘씩 짹지어 세상에 내어 보내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들이 전도여행에서 돌아왔을 때에 이번에는 그들을 고요히 교육하시기 위하여 작은 어촌인 벳세다 고을로 그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뜻과는 달리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군중에 접하신 것은 벳세다를 찾아가신 목적과는 다른 것이었지만 구하는 마음들에게 강하게 이끌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종전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시고, 병고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고쳐 주시었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는 동안 날은 저물고, 식사 때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의 걱정은 커서 주님께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에 은무리를 통하여 가진 것이라고는 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 밖에는 없다고 보고 하였는데도 주님은 5천명이나 되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이들을 50명씩 짹지어 앉게 하고서 나누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비지성적이며 비합리적이며 나아가서 무모하기 짹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예상밖에 큰 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난 후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기 시작한 때, 그 떡은 불어 그 많은 수를 먹이고도 남음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하라시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는 제자들이면서도, 그들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이 잘 아는 척 이유를 달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설명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예수께서 받은 떡은 그들의 수중에서 수백 배로 증가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께 순종함으로써 자신들이 이적을 행하는데 동참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성경상에 실증된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나의 신앙적 실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위대한 진리라는 것은 우리들의 순종심을 통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의 간증을 보다 강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생활은 쉽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때때로 계명은 우리의 지각에 어긋난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여야 할 것은 그것이 지각에 맞지 않고, 어려워 보이더라도, 주의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서 순종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토록 하기 어려운 것을 순종함으로써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적인 참 본보기가 아닙니까? 주님의 부름과 맞기신 의무를 순종하여 축복받는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동반자

1972년 10월 5일

부선교부장 박 재암 혁제

